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해  
교육하고 섬기고 심어온

# 전주강림교회 40년사

전주강림교회 40년사 편찬위원회 編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강림교회



## 40년사를 발간하며



양인석 목사  
(전주강림교회 담임)

전주강림교회 40년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40년은 성경에서 한 세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세대에 걸친 활동과 사역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은혜였고, 감동입니다. 5명의 성도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전주강림교회로 성장하기까지는 강림 성도 한 분 한 분의 눈물어린 기도와 진한 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인 1983년 12월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기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온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많은 성도가 전주강림교회 역사의 산증인들입니다.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흔적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 되었을 때 교회사 출간을 목표로 자료들을 모아서 준

비해 두었고, 드디어 40년이 되는 올해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특히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일찍부터 기록을 모아 둔 초기의 “역사 위원회 위원들”, 30년에 자료를 꼼꼼히 모아서 편집하셨던 황경주 장로님,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40년사를 써낸 최재룡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강림교회 40년은 도시의 성장과 경제적 부흥, 인구의 증가 시대에 발맞추어 성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적은 수로 시작한 교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2층 교회를 거쳐 오늘날의 그럴듯한 예배당과 부지를 마련했고, 40년이 된 지금은 꽤 괜찮은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본주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형적 성장과 동시에 내면적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해온 교회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인격적 성숙, 신앙적 성숙을 목표로 달려온 교회입니다. 외형적 성장만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면적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마흔 살이 된 교회답게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한 행정과 체제를 정돈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어른된 신학적 사고와 성숙한 신앙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주강림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주강림교회는 제 인생입니다. 이십 대 후반에, 막 개척을 시작한 전주강림교회에 출석해서 은퇴를 앞둔 지금까지 전주강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사람이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전주강림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다양한 이유로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큰 사랑의 빛을 쬐었습니다. 특히 너무도 일찍 주님 품에 안긴 고 안창엽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과 인도하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

강림교회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전주강림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강림교회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저의 고백이 강림의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갑시다.

## 40년사 발간을 기념하며

이병호 장로

(전주강림교회 40주년 행사 위원장)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이사야 40:6, 8).

전주강림교회를 사랑하시고 40년 역사 가운데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코람데오 (Coram Deo)’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강림교회는 1980년대의 역동적이며 놀려 있으나 결코 멈출 수 없는 민주화의 열망을 간직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전주강림교회는 역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 맥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몸부림치며 성장해온, 말 그대로 현대 교회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대적이며, 사람들을 만나

지 못하게 하고 예배마저도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가기를 바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동회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교회의 세속주의와 성장주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전주강림교회도 40년 역사를 정리하며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앞으로 40년 아니 100년을 준비하며 현재의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전을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할 시기임을 알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40주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40년 전주강림교회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엮어낸 최재룡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대적 흐름과 전주강림교회 발전을 놓치지 않고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40년사에 녹여낸 모든 편찬위원회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선 전주강림교회는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새로운 예배의 현장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4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황경주 장로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해 교육하고 섬기고 심어온 우리 전주강림교회 40년사가 이렇게 훌륭하게 출간됨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40년사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한 편찬위원님들과 특히 직접 집필하신 최재룡 목사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20년사와 30년사를 기획하고 작업을 시도했지만, 출간이 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같이 완벽한 40년사를 기다리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30년사 집필에 간여했던 저로서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을 짐작할 수 있기에 더욱 축하가 저절로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40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와같은 교회 역사의 집필은 역시 우리 교회에서 직접 목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만이 해낼 수 있는 작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의 세세한 사실(事實)들을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듯 현미경적으로 세밀하게 서술하

였고,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의 교회 발자취 전체를 망원경적으로 바라보고, 깊고도 넓은 사관(史觀)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그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보고 또 산 전체를 조망(眺望)하는 균형 잡힌 집필은 생각도 못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40년사가 이렇게 훌륭히 집필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필자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40년사를 40년 기간의 주요 인물들의 행적 기록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음이 분명하고, 교회 공동체의 발자취를 드러내고자 하였음은 타당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서술은 사실관계의 나열보다는 그 사실(史實)에 대한 의미와 평가 성찰이 있어야 함도 지적하면서 그것을 향후의 후속 과제로 남겨 50년사 집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라잡이까지 하여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0년사가 사실관계를 서술해 내는 데 그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시대 구분을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1981~1990),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1991~1999),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교회(2000~2011), 성숙한 교회를 꿈꾸며(2012~2021)의 네 시대로 구분하고 그 시대마다 역사를 개관하였습니다. 기구와 조적을 살피고, 강림공동체의 삶을 꾸밈 없이 진솔하게 세밀하고 충실히 담아냈고 그 속에서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의 작업은 집필자가 밝힌 대로 전주강림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한 헌신적인 사람들의 역사도,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한 목회자이신 안창엽 목사님과 양인석 목사님의 신학과 그 목회 활동에 대한 분석과 정리 작업이 이어져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40년 동안의 발자취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40년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切感)하면서 순간순간 놀라며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창립의 초창기에 난관에 부딪혀 교회가 존폐의 기로에 있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어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예배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는 온 교인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기쁨으로 협력하게 하시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가 시련을 겪을 때는 친히 붙들어 주시며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목회자를 보내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신 신앙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가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자부심으로 벅차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자랑하고 싶어서 자축(自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40년이란 긴 세월의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전주강림교회 40년사로 편찬하시느라 수고하신 편찬위원님들과 특히 이렇게 훌륭하게 집필하신 최재룡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전주강림교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사를 발간하며/ 양인석·3  
40년사 발간을 기념하며/ 이병호·6  
4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황경주·8  
  
서문·15

---

1기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1981~1990)

I. 개관 ..... 28  
1. 주요 연혁·28 2. 상황 읽기·31 3. 중요한 이정표들·35 4. 공간의 변화·44  
II. 기구와 조직 ..... 53  
1. 연도별 현황·53 2. 행정기구·59 3. 교회학교·67 4. 자치회·82  
III. 강림 공동체의 삶 ..... 96  
1. 예배·96 2. 절기와 행사·107 3. 선교·112 4. 목회·116

---

2기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1991~1999)

I. 개관 ..... 132  
1. 주요 연혁·132 2. 상황 읽기·135 3. 중요한 이정표들·140 4. 공간의 변화·152

II. 기구와 조직 .....	155
1. 연도별 현황·155	2. 행정기구·163
3. 교회학교·167	4. 자치회·183
III. 강림 공동체의 삶 .....	200
1. 예배·200	2. 절기와 행사·208
3. 선교·214	4. 목회·231

### 3기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교회(2000~2011)

I. 개관 .....	246
1. 주요 연혁·246	2. 상황 읽기·252
3. 중요한 이정표들·257	4. 공간의 변화·283
II. 기구와 조직 .....	289
1. 연도별 현황·289	2. 행정기구·309
3. 교회학교·313	4. 자치회·336
III. 강림 공동체의 삶 .....	358
1. 예배·358	2. 절기와 행사·370
3. 선교·379	4. 목회·409

### 4기 더 성숙한 교회를 꿈꾸며(2012~2021)

I. 개관 .....	436
1. 주요 연혁·436	2. 상황 읽기·443
3. 중요한 이정표들·450	4. 공간의 변화·471
II. 기구와 조직 .....	472
1. 연도별 현황·476	2. 행정기구·504
3. 교회학교·509	4. 자치회·524

Ⅲ. 강림 공동체의 삶.....	541
1. 예배·541 2. 절기와 행사·550 3. 선교·555 4. 목회·574	
맺는말	583

## 부록

전주강림교회 직원 선택 내규·594
전주강림교회 기록물 관리 규정·597
전주강림교회 기독교사회복지재단 정관·601
농촌선교위원회 회칙·609
해외선교위원회 운영 세칙·612
전주강림교회 장학재단 정관·614
해외어학연수·유학생·기타 지원에 관한 규정·618
창립 40주년 전주강림교회 신앙선언·626



## 서문

---

이 책은 1981년 7월 3일 첫발을 내디딘 전주강림교회가 2021년까지 걸어온 40년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다. 서문에서는 『전주강림교회 40년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맨 먼저, 40년사 편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개된 역사 편찬의 노력을 요약한다. 이는 이 책이 긴 시간의 노력이 한데 엉기어 만들어진 협업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역사 서술의 토대가 된 전주강림교회의 역사적 자료들을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셋째, 그 자료들을 다루는 관점을 소개한다. 넷째는 시대의 구분, 다섯째는 각 시대를 서술하는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 ■ 역사 편찬을 위한 발걸음

전주강림교회 40년사는 긴 여정의 결과물이다. 40년 세월을 걸어온 교회의 여정뿐만 아니라, 역사 편찬을 위한 노력이 오랫동안 있었다. 창립 20주년에 맞춰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사진 및 자료 수집 책임자를 1998년 3월 1일에 선임한 바 있었다(이정석 장로, 동선옥 전도사, 이연우 집사). 이후, 교회사 편찬위원을 정하고 교회사 편찬을

추진하였다(황경주 장로, 김구태 안길권 원도연 집사, 배인순 권사, 김신현 성민식 황의석 황의찬 청년). 편찬위원들은 ‘전주강림교회 20년 자료집’, ‘전주강림교회 20년사’, ‘안창엽 목사 설교집’ 이렇게 세 가지의 책을 발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초창기 교인들을 인터뷰하여 녹취하였다. 이때 최종적인 편찬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2001년 “전주강림교회 20년 소사”를 작성하여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교회 회보에 게재하였다.

역사 편찬을 위한 노력은 30주년에 맞추어 다시 한번 일어났다.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9년 9월 6일 당회는 황경주 장로를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황경주 장로는 많은 노력 끝에 7시기로 시대를 구분한 뒤, 각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추리고 시기별로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교회의 초창기’ (1981년 7월~1983년 8월), ‘하나님이 뿌리내리게 하실 때-교회의 정착기’ (1983년 9월~1985년), ‘하나님이 키우실 때-교회 부흥기’ (1986~1988년), ‘하나님이 이끄실 때-교회의 발전기’ (1989~1999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교회의 시련과 극복기’ (2000~2001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교회의 성장기’ (2002~2010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교회 내일의 비전’ (2011년 이후) 등이 그 일곱 시기였다. 30년사 역시 최종적인 편찬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비롯한 많은 부분을 정리해냈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이룸으로써 중요한 자료집을 남길 수 있었다.

20주년과 30주년 때의 교회사 편찬 노력은 『전주강림교회 40년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우선, 사진, 주보, 수첩 등 초창기의 자료들이 이 두 번의 노력으로 수집될 수 있었다. 둘째, 초창기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그 증언을 확보하고 녹취하여 자료로 만들어 두었다. 셋째, 초창기 역사를 복원하는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자체가 차후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넷째, 전 교회적으로 역사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자료의 작성과 수집 그리고 보존을 크게 향상시켰다. 실제로 20주년을 지나면서 보존된 자료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분류도 세밀해졌다. 그리고 30주년을 지나면서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다시 한번 체계화되었음이 또렷하게 확인

된다. 특히 2014년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규정’을 마련하고 목회 행정 업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자료의 생산, 수집, 분류, 보존 역량이 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주강림교회 40년사』 편찬을 위한 준비는 2017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12월 13일, 종합선교관 건축을 위해 옛 사랑관과 당회실 등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 교회 곳곳에 남겨져 있던 자료 문치들을 임시 사랑관의 다락방으로 모았다.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자료 더미들에 대한 분류와 정리 작업을 두어 차례 진행하였고, 종합선교관에는 자료실을 마련하였다. 2018년 12월 4일, 완공된 종합선교관 건물로 목양실, 당회실, 사무실 등이 입주할 때, 사전 정리를 거친 자료들을 미리 마련된 자료실에 옮기면서 재차 분류와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소실된 것으로 여겨졌던 중요 자료들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자료의 양이 풍부해졌다. 나아가 분야별로 구획된 공간에 자료들을 분류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새로 확보되는 자료들도 각각의 공간에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분야별로 구분해 놓은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하고, 연대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2019년 내내 교역자들의 손끝에서 진행되었다. 분류가 완료된 자료들은 가능한 한 책으로 제본하여 보존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집필자인 최재룡 목사는 2019년 7월과 8월 주요 자료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역사 서술의 방향과 시대 구분, 시대별 세부 목차 구성 등을 마치고 집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집필 과정은 지체되었고, 창립 40주년을 맞는 2021년 2월부터 집필 작업이 재개되었다. 초고 집필을 마치고 6월 12일에 초고 검토본이 제출되어, 담당자들이 읽고 의견을 제출하였다(양인석 목사, 최규익 목사 / 안길권 장로, 안송엽 장로, 윤철 장로, 이감철 장로, 이병호 장로, 황경주 장로 / 고도욱 집사, 안진상 집사 / 김명신 권사, 김순옥 권사, 원지현 권사).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한 수정 작업 후 11월 7일 수정 검토본이 편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교역자들은 이 원고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교회 역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11월 14일, 21일, 28일). 편찬위원들의 검토와 교역자들의 세미나를 거쳐 12월 5일 모인 최종 편찬회의에서 최종적인 수정과 출판의 방향을 정하였다.

## ■ 자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의 삶을 살아낸 성도들의 피땀 어린 발자취라 할 수 있다. 『전주강림교회 40년사』 역시 다르지 않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전주강림교회라는 공동체에 몸담고 헌신한 성도들의 삶이 40년의 역사를 그려냈다. 역사 편찬 작업은 교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성도들이 쏟아낸 땀과 눈물, 헌신과 열정, 기쁨과 감동, 감사의 흔적들을 되짚어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이 ‘정리와 기록’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관점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지나온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 역사가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자료 속에 담긴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가의 관점과 만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이 역사 서술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료의 나열, 혹은 자료가 품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 그 자체가 역사가 되지는 않는다. 자료를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가의 손안에서 분류되고, 분석되고, 평가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나아가 역사가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역사가의 손끝에서 의미와 위치를 부여받은 역사적 사실들의 구조물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미와 자리를 부여하는 역사가의 모든 작업에는 ‘역사가의 관점’ 즉 ‘사관(史觀)’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역사 서술은 그 토대가 되는 자료와 관점의 문제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본 역사 서술의 토대가 된 전주강림교회의 자료는 회의록, 인쇄물 자료, 재무 자료, 각종 활동 자료, 기타 자료 이렇게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의록에는 당회록, 제직회의록, 공동의회록, 교역자 회의록 등이 있다. 당회록과 공동의회록은 당회가 출범한 1986년부터 남겨져 있다. 제직회의록은 1987년부터 남겨져 있다. 교역자 회의록은 2014년부터 남겨져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인쇄물 자료에는 연도별 교회 수첩, 연도별 주보, 안창엽 목사의 저서인 『알기 쉬운 예배 이야기』, 1996년의 정책 세미나 자료 모음집인 『21세기 전주강림교회 비전』, 비정기적으로

간행된 교회 회보 「선교와 사랑의 현장」, 전도부에서 발간한 「전도부 이야기」 등이 있다. 교회 수첩은 1986년부터 남겨져 있다. 주보는 1984년부터 간헐적으로 남겨지기 시작하여 1991년부터는 1993년도분을 제외한 모든 연도의 주보가 제본된 형태로 남겨져 있다. 세 번째 범주인 재무 자료로는 연도별 회계장부, 연도별 지출 결의서 모음, 연도별 감사 보고서(간헐적), 연도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2012년 이후) 등이 보존되어 있다.

네 번째 범주인 활동자료들로는 연도별 행사 자료 모음, 교회학교 부서별 자료 모음, 청년회 활동자료, 남·녀선교회 활동을 보여주는 회의록 및 단편 자료들, 각종 선교 담당 기관들의 활동자료(농촌선교위원회, 지역사랑위원회·강림기독교사회복지재단, 의료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강림장학재단, 해외어학연수원, 크리스찬진학연구소, 강림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사진첩, 교역자들의 연말 사역평가 자료 등이 있다. 교회학교와 청년회 활동자료, 각종 행사자료는 1983년부터 간헐적으로 남겨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상당히 충실해졌고, 창립 20주년(2001년)을 지나면서 매우 풍성해졌으며, 창립 30주년(2011년)을 지나면서 생산·수집·분류·보존의 전 과정이 체계화되었다. 각종 선교활동 관련 자료들은 각 기관의 활동 초창기부터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다. 사진 자료 역시 초창기 자료는 다소 희소하나 1990년대부터는 각종 행사를 중심으로 남겨져 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교회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에 디지털 자료로 축적되어 있다. 교역자들의 연도별 사역 평가자료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번째 범주인 기타 자료로는 안창엽 목사 목회 자료, 20주년과 30주년 당시의 역사 편찬 작업으로 형성된 녹취 자료, 황경주 장로의 『전주강림교회 30년사 자료집』, 교회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에 축적된 자료, 교회 사무실 서버용 컴퓨터에 축적된 디지털 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 가운데 본 역사 서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자료는 회의록(당회록, 제직회의록, 공동의회록 등), 주보, 교회 수첩, 교역자들의 사역 평가 자료, 황경주 장로의 『전주강림교회 30년사 자료집』 등이다. 이들 사이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주요 사건들의 연대와 일시, 일의 전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실행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주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교역자들의 목회 보고서나 연말의 사역평가 자료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들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에 황경주 장로의 『전주강림교회 30년사 자료집』이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교회의 각종 행사나 선교 활동, 교회학교와 청년회의 활동 관련해서는 각종 행사자료,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활동자료, 선교 담당 기관들이 남긴 활동자료들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했음은 물론이다.

## ■ 관점

한국교회에 제시된 교회사 서술의 관점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 확장 사관’이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확산해 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처음으로 한국교회의 역사를 서술한 백낙준이 사용한 관점으로<sup>1</sup> 자신의 스승인 케네스 스콧 라투렛의 사관을 차용한 것이었다. 라투렛은 기독교 확장사의 관점으로 근대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 과정을 정리한 학자였다. 둘째, ‘수용 사관’이다. 확장 사관이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복음의 수용자들과 토착교회의 주체성을 무시하게 된다고 보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한 과정에 더 주안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는 이만열에 의해 제시되었다.<sup>2</sup>

셋째는 ‘민족교회 형성 사관’이다. 이는 민경배가 제시하였는데, 민족 사관을 결들여 민족교회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망하였다.<sup>3</sup> 확장 사관이나 수용 사관 모두 일종의 ‘선교 사관’으로, 선교 초창기의 역사에 집중

1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2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서울: 두레시대, 1998).

3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신개정판).

하게 되고 이후의 발전 과정을 조망하는 데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민경배가 제시한 민족교회 형성 사관은 교회 역사 연구의 초점을 ‘한국 선교’에서 ‘한국 교회’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는 ‘토착교회 형성 사관’이다. 이는 이덕주가 제시하였는데, 앞에 제시된 세 가지 관점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이덕주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수용 모두를 한국 토착교회의 형성 과정으로 포괄하여 정리하면서, 그 토착교회의 발전 과정으로 교회 역사를 서술하였다.

한국교회 전반의 역사 서술을 위해 정립된 이상의 관점들을 개교회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하나의 관점만을 적용하여 일관되게 서술하려 하는 것도 상당히 억지스러운 일이 되고, 많은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개교회의 역사 서술은 대체로 한 신앙공동체의 수립과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회의 개척 과정, 교세의 성장, 조직의 형성과 확장, 해외 선교나 사회봉사의 실천, 그 일들에 기여한 영웅적 신앙 인물들에 대한 묘사 등이 그 줄기를 이룬다. 이러한 역사 서술을 빚어내는 밑바탕의 사관은 ‘확장 사관’과 위인전기 서술의 ‘영웅 사관’이 결합한 형태라고 보여진다. 연대기 위주의 역사, 영웅 위주의 역사에 길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성장 과정에 대한 조명이나 그에 기여한 영웅적 신앙 인물들에 대한 전기적 기술보다는, 신앙‘공동체’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앙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최근 일반 역사학계에서도 생활사, 문화사 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배 세력 중심의 역사로부터 민중 중심의 역사로, 역사 인식의 틀이 전환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중사관(民衆史觀)을 가지고 개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그 역사는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회중들이 그려낸 신앙적 삶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본 역사 서술에는 상기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함께 엮여 있다. 다시 말해, 전주

---

4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연사연구소, 2001).

강림교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피되, 기존의 관심에 더하여 ‘공동체의 삶’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피고, 인물보다는 공동체에 더 주목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의 신앙공동체는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 일반 및 더 넓은 범주의 교회 즉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 개교회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 및 보편교회의 역사적 흐름과 어떻게 결부되어 움직였는가 하는 점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들이 본 역사 서술의 시대 구분과 각 시대에 관한 서술의 구조 안에 반영되어 있다.

## ■ 시대 구분

역사 서술에서 시대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 시대의 시작과 끝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각 시대의 의미가 달라지고 전체 역사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한 개교회의 역사 서술에 사용할 수 있는 시대 구분 방법은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첫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 일반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 구분이다. 이는 보편사(普遍史) 중심의 시대 구분이라 부를 수 있으며, 보편 역사의 중요한 흐름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중심으로 한 서술이 될 것이다. 둘째는 개교회가 속해 있는 더 큰 범주의 교회 즉 보편교회(普遍教會)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 시대 구분이다.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개혁교회사, 소속 교단사, 지역노회사와 같이 넓은 범주의 교회사에서 사용된 시대 구분을 따르면서, 각 시대 해당 개교회의 모습을 보편교회사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셋째는 개교회별로 교회 자체의 내적 요인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아마도 앞의 두 가지 시대 구분법은 매우 긴 역사가 있으며, 보편사나 보편교회사의 한복판을 걸어온 개교회의 역사를 서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교회가 걸어온 역사는 보편사나 보편교회사와 무관하지는 않되 한걸음 떨어져 그 나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내적 요인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그 변화의 추이를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책은 전주강림교회의 40년 역사를 교회의 내적 요인에 근거하여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제1기는 1981~1990년까지이며,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라는 제목 아래 기술하였다. 이 시기는 교회의 개척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사이에 교회의 이름은 ‘은성교회’에서 ‘동산중앙교회’로 그리고 ‘전주강림교회’로 바뀌었다. 교회의 자리는 경원동에서 진북동으로 그리고 금암동으로 이동하였다. 두 번의 건축을 통해 현재의 본관을 완성하였고, 꾸준한 성장 속에서 1차, 2차 임직예식을 통해 일꾼들을 세우고 조직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제2기는 1991~1999년이며,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라고 이름 지었다. 이 시기는 1990년 말에 찾은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하여, 1999년 말 안창엽 목사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그 매듭을 이루었다. 이 기간에 전주강림교회는 농촌교회들과의 협력 선교와 지역사회봉사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의 길을 활짝 열고 열정적으로 실천하였다. 또한 교육관 건축 등을 통해 내부 시설을 확충하고, 3차 및 4차 임직예식을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등 교회의 내실도 더욱 굳게 다져 나갔다.

제3기는 2000~2011년이며,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교회”로 요약하였다. 이 시기는 안창엽 목사 소천 후의 어수선했던 속에 출발하였으나, 2001년 양인석 목사의 부임과 함께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새롭게 기틀을 다졌으며, 2011년 창립 30주년으로 맺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라는 정책적 슬로건 아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교회의 각종 활동과 기구들을 정비하고,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5차, 6차, 7차 임직예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한편, 각종 개혁적인 조치와 구역말씀예배 등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목회의 틀을 정비하였다.

제4기는 2012~2021년이며 “더 성숙한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

다. 이 시기는, 창립 30주년 이후 장년의 교회로서 더 성숙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쉽 없는 기도 속에 시작되어, 창립 40주년으로 마감되었다. 각종 규정과 기구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목회 행정의 틀을 디지털화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들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8차, 9차 임직예식을 통해 일꾼들을 세우고, 종합선교관 건축과 본당 리모델링을 통해 활동 공간도 새롭게 구성하였다.

## ■ 구조

이 책은 각각의 시대를 세 가지의 큰 범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는 ‘개관’이다. 개관 부분은 ‘이 시기의 주요 연혁’을 통해 해당 시대의 전반을 간략히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상황 읽기’, ‘중요한 이정표들’, ‘교회 공간의 변화’를 통해, 해당 시대의 주요한 열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황 읽기’는 다시 ‘이 시기를 규정하는 교회의 상황’, ‘교회 밖 상황’, ‘보편교회의 상황’을 두어 해당 시기에 관한 큰 그림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중요한 이정표들’에서는 해당 시기를 구성하는 교회 내의 중요한 사건과 발전들을 정리하여 역사적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 공간의 변화’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시기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는 ‘기구와 조직’이다. 여기에는 ‘연도별 현황’을 제시한 후, ‘행정기구’, ‘교회학교’, ‘자치회’로 나누어 각 기구의 운용과 활동들을 정리하였다. ‘연도별 현황’에는 ‘연도별 직원 현황’과 ‘연도별 조직 현황’이 담겨 있다. ‘행정기구’는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그리고 주요한 활동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교회학교’ 역시 각 시기별 운용 방식과 주요한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교회학교 조직의 연도별 편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자치회’는 청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 자치 조직들의 활동과 연도별 조직 현황을 담고 있다. 구역 조직은 목회

부분에서 그리고 찬양대 등의 조직은 예배 부분에서 정리하였다.

셋째는 ‘강림공동체의 삶’이다. 여기에는 각 시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예배’, ‘절기와 행사’, ‘선교’, ‘목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예배’ 안에는 ‘주일예배와 성례전’, ‘주일오후·구역말씀예배’, ‘수요성서학교’, ‘각종 기도회’, ‘예배 관련 기구들의 활동’을 담아서, 전주강림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절기와 행사’에서는 ‘사순절과 부활절’, ‘대림절과 성탄절’, ‘창립기념주일’, ‘추수감사절’ 등 주요 절기를 지내는 모습들을 시대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밖에 각 시대의 중요한 행사들도 함께 정리하였다.

‘선교’에서는 ‘복음전도 선교’, ‘지역교회 협력 선교’, ‘해외·타문화권 선교’, ‘지역사회봉사 선교’, ‘인재양성 선교’ 등 전주강림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선교 활동의 각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목회’ 부분은 ‘목회 상황 개관’, ‘목양 관리’, ‘교회 밖을 향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목회 상황 개관’에서는 해당 시대 교역자들의 활동과 현황을 정리하였다. ‘목양 관리’에서는 해당 시대 목양 활동의 모습,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노력 그리고 목양 구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의 운영과 조직 현황 등을 기술하였다. ‘교회 밖을 향한 태도’는 민족과 사회의 문제 그리고 다른 교회 조직들과의 연합 활동 등에 관련한 전주강림교회의 자세와 활동들을 요약하고 있다.



1기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1981~1990)



# I. 개관

---

## 1. 주요 연혁

### ■ 1981년

- 7월 3일 '은성교회'로 개척 시작(경원동 동산의원 3층)
- 8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동산중앙교회'로 개명
- 8월 21일 안창엽 목사 '초청 당회장'으로 부임
- 8월 23일 '교회운영위원회' 조직
- 8월 23일 송마리아 전도사, 차길송 전도사 취임
- 9월 27일 여전도회 조직(회장: 김부자)
- 10월 13일 전북노회 97회 정기노회에서 '동산중앙교회'의 설립을 허락하고  
임시당회장으로 안창엽 목사를 파송
- 11월 4일 진북동 290-4번지 옥천빌딩 2층으로 이전
- 11월 22일 교회학교 이동부와 학생회(중·고등부) 조직
- 12월 13일 첫 성례(세례와 성찬) 시행
- 12월 13일 제직회 조직

## ■ 1982년

- 2월 14일 김종채 담임목사 부임
- 4월 14일 교회 전화 개통(5-3202)
- 5월 16일 주보 발행 시작
- 6월 13일 청년회 조직(회장: 박용규)
- 6월 27일 차길송 전도사 사임

## ■ 1983년

- 6월 9일 김종채 목사 사임
- 9월 18일 안창엽 담임목사 부임
- 12월 4일 남선교회 조직(회장: 김기범)

## ■ 1984년(표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는 교회)

- 1월 1일 신선일 전도사 부임
- 1월 1일 구역 조직
- 2월 5일 교회학교를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로 분리
- 7월 5일 '2차 제직수련회'에서 예배당 건축 결의
- 12월 2일 건축위원회 조직(위원장: 정라헬 집사)
- 12월 30일 인도자의 말을 최소화하는 예배 진행 시작
- 12월 30일 신선일 전도사 사임

## ■ 1985년(표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는 교회)

- 4월 10일 예배당 건축 기공예배
- 6월 16일 지하 예배당 입당(6월 15일 이사)
- 8월 18일 동선옥 전도사 부임
- 10월 27일 공동의회에서 첫 장로 후보자 선택

10월 27일 '고등부 문학의 밤' (이후 '찬양의 밤' 으로 이어짐)

11월 3일 공동의회에서 첫 집사, 권사 후보자 선택

■ 1986년(표어: 주님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증인된 교회)

2월 20일 농촌 선교 시작(장수군 신기교회에 신정의 전도사 파송)

4월 16일 '전주강림교회' 로 개명(전북노회 제106회 정기노회)

5월 4일 1차 임직예식(장로 4인, 집사 4인, 권사 2인)

5월 27일 첫 당회 소집

12월 7일 양인석 교육전도사 임명

■ 1987년(표어: 주님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증인된 교회)

3월 15일 제직회와 당회에서 교회당 증축 결의(6월 설계, 11월 착공)

3월 22일 2차 건축위원회 조직(위원장: 권이철 장로)

안창엽 목사 전북노회 108회기 노회장 역임

■ 1988년(표어: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1월 1일 청년회를 1청년회와 2청년회로 분리

9월 15일 해외 선교 시작(태국 팻담교회)

10월 23일 예배당 2차 건축 후 입당

11월 12일 안창엽 목사 위임예식

11월 12일 2차 임직예식(장로 2인, 집사 7인, 권사 4인)

■ 1989년(표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합시다)

6월 24일 2여전도회 주최 경로잔치

12월 31일 최만규 교육전도사 부임

■ 1990년(표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합시다)

9월 1일 최만규 전도사 전임으로 전환

10월 11~12일 전북노회 115회 정기노회 본교회당 개최

11월 18일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 제직 토론회

## 2. 상황 읽기

### 1) 이 시기를 규정하는 교회의 상황

1981년 7월 3일 '은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전주강림교회는, 이 시기의 끝인 1990년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함으로써 한 시대의 매듭을 만들었다. 이 시기는 미약한 개척교회로 출발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찾아 감당하고자 나설 만큼 든든히 세워진 시기였다. 그 안에서도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개척기였다. '은성교회'로 시작한 교회 이름은 1981년 8월 20일 '동산중앙교회'로 바뀌었다. 교회의 자리는 1981년 11월 4일 진북동으로 옮겨갔다. 개척교회로서 부침을 거듭하던 '동산중앙교회'는 1983년 9월 18일 안창엽 목사가 부임하면서 드디어 안정과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 금암동 현 위치에 1차 예배당을 건축하고 6월 16일 입당함으로써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 개척 시기 교회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연도별 주보와 몇몇의 단편적인 문서 자료, 사진 등이 있다. 그리고 20년사와 30년사 편찬 시도 때, 황경주 장로와 편찬위원회가 녹취한 초창기 교인들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로 남겨졌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개척 단계를 넘어 어엿한 중견교회로 든든히 서게 된 시기이다. 1차 예배당 건축을 통해 현 위치에 자리를 잡은 교회는 1986년 4월

16일 ‘전주강림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같은 해 5월 4일 1차 임직예식을 통해 조 직상의 토대를 갖추었다. 1988년 10월 23일에는 2차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입당함으 로써 넉넉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어진 1988년 11월 12일의 안창엽 목사 위임 예식 및 2차 임직예식을 통해 교회의 조직이 더욱 단단히 다져졌다. 이 시기에 전주 강림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였다. 그 일환으로 농촌 선교(1986년 2월 20일)와 해외 선교(1988년 9월 15일)를 시작하였고, 1990년에 이르러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교회의 지향점을 수립하였다. 이 시대를 보여주는 주요 사료로는 1986년부터 작성된 당회록, 1987년 부터 작성된 제직회의록, 1986년부터 발행된 교회생활수첩,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주 보 등이 있다. 1988년도 교회학교 운영계획서를 비롯하여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몇 몇 활동자료들과 행사 순서지 등도 일부 남아있다.

## 2) 교회 밖 상황

전주강림교회가 ‘은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때, 교회 밖 에서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짓밟고 올라선 신군부의 독재와 그에 저항하는 치열 한 민주화 운동이 맞부딪치고 있었다. 신군부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사그라진 듯했 던 광주민중항쟁의 불씨가 노동 운동과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점점 번져 갔고, 급기야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1987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의 분열로 인해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 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1988년 13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으로 ‘5공청문 회’와 ‘광주청문회’ 등을 통해 12.12 군사정변과 광주 민중 학살 등에 대해 부분적 이나마 진실 규명과 단죄가 시작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저(低)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경제 의 급속한 성장이 이어졌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되

어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이 1980년대 초에 70%를 넘어서고 1990년에는 80%를 넘기는 등 도시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었다.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같은 굵직한 국제 행사들을 개최하고, 1989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는 등 한국은 바야흐로 세계의 변방으로부터 중심 무대를 향해 서서히 움직여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를 남긴 1988년의 ‘지강현 사건’이 보여준 바와 같이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권력과 자본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었다.

### 3) 보편교회의 상황과 전주강림교회의 응답

1985년 선교 100주년을 바라보던 한국교회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대분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 지역에서의 급속한 교회 성장과 대형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도시 지역의 교회성장과 대형화 현상에는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과 더불어, 군부 정권이 내세운 경제제일주의에 호응하면서 자본주의적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시하는 ‘번영주의 복음’을 내세운 공격적 선교가 한몫을 하였다. 교회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격적 선교의 흐름은 1989년에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하여 해외 선교 운동으로 이어졌다. 교회 성장 운동을 통해 형성된 한국교회의 주류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독재 권력의 인권 유린이나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평화와 통일 등의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는 정적주의(靜寂主義)로 일관하였다.

한편, 한국교회의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보루와 보호막 역할을 해 주었다. 또한 한반도 내 역사적 모순의 정점에 남북분단체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교회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물로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북한교회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정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에큐메니컬운동의 열매였다. 1989년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가진 회담은 남북 당국자 간 대화의 물꼬가 열리게 하는 시대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적주의(靜寂主義)로 일관하던 한국교회 보수 세력은 이러한 에큐메니컬운동의 성과를 못마땅해하며 정치세력화에 나섰다. 1989년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제 갓 태어난 개척교회였던 전주강림교회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교회적 상황에 대해 주도적 행동을 펼칠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 외적 상황과 무관한 존재도 아니었다. 일례로,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예배당 건축을 해낸 것은,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경제 성장 등 외부의 물적 토대 변화에 힘입은 바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의 병폐였던 분열로부터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으나 그 분열의 흐름을 끊어내고 극복함으로써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또한 역사의 흐름에 응답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와 힘을 모으는 일에 참여하고,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해외 선교 운동에도 동참하였다. 여기에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하나 된 교회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 또한 개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연합된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역사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함께 호흡하는 참여가 있었다.

특히, 청년들은 이 시대의 민족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시대의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역사 참여의 문제가 신앙과 별개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신앙고백적 사회 참여의 길을 찾아 나갔다. 이를 토대로 전주강림교회의 청년들은

당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던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장로교청년연합회 활동을 통해서도 민주화와 통일 등 민족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역사참여적 신앙의 정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주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자료집 「광주 민주화 항쟁」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교회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 3. 중요한 이정표들

#### 1) 교회의 시작

전주강림교회의 시작은 1981년 7월 3일 강석분, 오정희, 정라헬, 차길송 4명의 성도가 모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린 개척예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은성교회는 사실, 연이은 교회 분열의 결과물이었다. 한국교회의 분열상은 1945년 8·15 광복 이후 교회의 재건 과정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교단들의 분열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열상은 각 개교회의 분열로도 이어져, 교회 분열은 한국교회의 주요한 병폐 중 하나로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흥교회(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98-7번지)에서 갈라져 나온 교인들이 ‘대성교회’를 세웠고, 대성교회가 분열하면서 ‘첫 번째 은성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첫 번째 은성교회의 분열로 다시 ‘두 번째 은성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두 번째 ‘은성교회’가 바로 ‘전주강림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성교회

당시 전흥교회에서 목회하던 김기만 전도사가 몇몇 교인들과 함께 ‘대성교회’를 개척하였다. 당시 전흥교회는 65세 정년을 넘긴 고령의 김기만 전도사에게 은퇴를 종용하고 있었다. 그러자 김기만 전도사와 김종웅 장로를 중심으로 김종순, 김옥희, 신은순, 신정의 등 20명의 성도가 전흥교회를 떠나 ‘대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였다. 이때가 1979년 즈음이었다. 예배 처소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천변 쪽의 당시 금암 채소 도매시장 옆 이층이었다.

### (2) 첫 번째 은성교회

대성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를 개척한 지 2년 후 교인 수가 불어 40명 정도가 되었을 때, 김기만 전도사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목사안수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실망한 9명가량의 교인들이 대성교회를 떠나 금암광장 근방에 첫 번째 ‘은성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첫 번째 은성교회는 채홍학 목사(채규환 집사의 부친)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30명 정도까지 교인이 증가하였다. 고창 등의 지역에서 순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송마리아 전도사도 이즈음부터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 (3) 두 번째 은성교회

문제가 또 발생하였다. 당시 부흥강사였던 임성주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게 되었는데, 임성주 목사는 서울에 있는 교회도 담임하고, 은성교회도 담임하여 격주로 예배를 인도하였다. 게다가 수시로 부흥회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공백이 많았다. 그 공백 시의 예배 인도는 신학생이었던 차길송 전도사나 채홍학 목사가 대신하곤 하였다. 이처럼 불성실하고 안정되지 못한 목회 상황으로 인해, 일부 교인들이 다시 첫 번째 은성교회를 떠나 두 번째 ‘은성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가 1981년 7월 3일이었고, 이 두 번째 은성교회가 바로 오늘날 전주강림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 2) 골격 세우기

### (1) 경원동 시대

개척 당시의 예배 처소는 정라헬 집사가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 건물(전주시 경원동 동산의원) 3층이었다. 교회는 이곳에서 4개월간을 머물렀다. 교회 이름을 첫 번째 은성교회와 똑같이 ‘은성교회’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은성교회를 오롯이 흡수하여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는 뜻 때문이었다. 교회 이름은 한 달 반 후인 1981년 8월 20일 ‘동산중앙교회’로 변경되었다. 8월 21일에는 당시 효자동교회에 시무하고 있던 안창엽 목사를 초청, 임시당회장으로 초빙함으로써 동산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북노회와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이어 8월 23일에는 교회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당회와 제직회가 없는 교회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였고, 9월 27일에는 여전도회도 조직하였다(회장 김부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북노회는 1981년 10월 13일 97회<sup>1</sup> 정기노회에서 ‘동산중앙교회’의 설립을 허락하고, 효자동교회 안창엽



옛 동산의원 건물(관통로 4거리 풍년제과 뒷편)

1 당시의 노회 회기로는 90회였다. 당시에는 ‘전라노회’가 ‘전북노회’와 ‘전남노회’로 나뉘기 전의 일곱 회

목사를 초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이로써 동산중앙교회는 예장(통합) 전북노회 소속 교회로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 (2) 진북동 시대의 시작

1981년 11월 4일 동산중앙교회는 예배 처소를 옮긴다. 옛 소방서 앞, 팔달로의 큰 길 옆인 진북동 290-4번지 옥천빌딩 2층이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자리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린 1985년 6월 16일까지 약 3년 7개월가량을 진북동에서 보내게 된다. 이곳 진북동에서 동산중앙교회는 교회로서의 뼈대를 갖추었다. 1981년 11월 22일 교회학교 아동부와 학생회(중·고등부)를 만들었다.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처음으로 제직회를 조직하였으며 첫 성례(세례와 성찬)를 행하였다. 이듬해인 1982년 2월 14일 담임목사로 김종채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의 정초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1982년 3월 21일 교회 버스 운영을 시작하였고, 4월 14일에는 교회



교회의 두 번째 자리인 옥천빌딩(팔달로변 흥국생명빌딩 옆)

기를 전북노회의 회기로 기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회기는 '전라노회' 시절부터 기산하고 있어서, 당시의 회기에 7을 더한 숫자가 된다. 이후에 등장하는 노회 회기 역시 현행 회기 기산법을 따른다.

전화도 개통하였다(5-3202). 같은 해 5월 16일부터 주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6월 13일에는 청년회를 조직하였다(회장 : 박용규). 김종채 목사는 1983년 6월 9일 사임하였다.

### (3) 안창엽 목사의 부임과 교회의 골격 세우기

1983년 9월 18일 안창엽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안창엽 목사는 부임과 동시에 교회의 예배를 정비하고, 교인들의 신앙교육에 힘을 쏟았다. 제직들을 훈련하고, 정밀하게 조직하여 교회 운영의 주체로 세우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는 매월 소집되는 정기제직회가 교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었고, 제직회 각 부서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 구역들을 조직하여 목양 활동의 체계를 세워나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여 1984년 4월 8일의 총동원 주일에는 123명이 모여 예배할 수 있었다.



부임 초창기의 안창엽 목사

### (4) 금암동 시대의 시작

또한 예배당 건축을 추진하여 1985년 6월 15일 현재의 자리로 이사하고, 6월 16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1985년 10월 27일에는 공동의회에서 처음으로 장로 후보들을 선출하고, 11월 3일에는 집사와 권사 후보들을 선출하였다. 1986년 4월 16일에는 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변경하였다. ‘동산’ 중앙교회이다 보니, 교회의 위치를 동



지하 예배당 입당예배(1985년 6월 16일)

산동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잦았던 것이 교회 이름 변경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교회 이름은 전교인들 대상으로 2개월간 공모한 후에 제비뽑기로 결정하였다. 전북노회 1986년 4월 16일 106회 정기노회에서 ‘전주강림교회’로의 명칭 변경이 허락되었다.

### 3) 교회 조직의 강화: 1·2차 임직예식과 안창엽 목사 위임

장로교 정치 체제는 목사와 2명 이상의 시무장로로 이루어진 ‘조직 당회’를 이루었을 때, 한 지교회의 조직이 완결되는 것으로 본다. 전주강림교회는 1985년 4월 16일 전북노회 제104회 정기노회에서 장로 4명의 장립을 허락받았다. 1985년 10월 27일 공동의회에서 권이철 장로의 시무를 인준하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3인을 장로 후보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1985년 11월 3일 공동의회에서 김정은 권사와 송양순 권사의 시무를 인준하고, 김광일, 류시영, 이기철, 임건웅 4인을 안수집사 후보로

선택하였다. 이들에 대한 임직예식을 1986년 5월 4일에 행하였다. 전주강림교회의 첫 번째 임직예식이었다. 이로써, 전주강림교회는 ‘조직 당회’를 구성하고 장로교회로서 완결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조직 당회와 항존직 일꾼인 안수집사, 권사를 모두 갖춘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

2차 항존직 임직을 위한 준비가 1988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4월 10일 당회는 장로 2명을 증원키로 하고 전북노회에 청원하여, 1988년 4월 26일 전북노회 110회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받았다. 1988년 5월 8일과 15일의 공동의회에서 온호섭 집사와 류시영 집사를 장로 후보로 선택하였다. 이어진 안수집사 선택 투표에서 고창남, 김을환, 양기영, 조성환, 허용욱 집사가 후보로 선택되었다. 권사 후보로는 박영자, 이양순, 이정자 집사가 선택되었다. 또한 이정석, 진교현 집사의 안수집사 취임과 이순의 권사의 권사 취임을 인준하였다. 이들에 대한 임직예식은 1988년 11월 12일 안창엽 목사 위임예식과 함께 행하였다. 안창엽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일은 임시당회장 허양수 목사가 주재한 1988년 10월 1일 당회와 10월 9일의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해 10월 23일에 예배당 2차 건축을 마치고 입당하였으므로, 이 2차 임직예식은 현재의 예배당 본당에서 행해진 첫 번째 임직예식이 된다.



1차 임직예식(1986년 5월 4일)

### 1차 임직예식(1986년 5월 4일)

- 장로 취임 : 권이철
- 장로 임직 :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 권사 취임 : 김정은 송양순
- 집사 임직 : 김광일 류시영 이기철 임건웅

### 2차 임직예식(1988년 11월 12일)

- 목사 위임 : 안창엽
- 장로 임직 : 류시영 은호섭
- 집사 취임 : 이정석 진교헌
- 집사 임직 : 고창남 김을환 양기영 조성환 허용욱
- 권사 취임 : 이순의
- 권사 임직 : 박영자 이양순 이정자
- 명예권사 취임 : 최순례

## 4) 지속적인 발전: 2차 예배당 건축, 교회의 성장, 선교 활동의 기지개

2차 예배당 건축을 통해 현재의 본당 건물이 완성되었다. 1987년 3월 15일의 제직회와 당회에서 예배당 증축을 결의하고 추진하였다. 1987년 6월 설계를 시작하고 11월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1988년 10월 23일 연건평 450평의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현재의 본당에 해당하는 건물을 완성함으로써 이후 교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시기는 뚜렷한 성장의 시기였다. 1984년에는 주일예배 참석 평균 교인 수가 70명 정도 되었고, 1985년에는 100명 정도였다. 이후 1986년 150명, 1987년 190명, 1988년 230명, 1989년 272명, 1990년 315명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40~50명 정도의 증



본당 입당예배(1988년 10월 23일)

가가 이어졌다. 이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한 전주 지역의 인구 팽창과 교회 주변 주택가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의 조직 및 시설 기반의 확충, 효과적인 목회 등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전주강림교회가 조직, 건물, 교인 수 증가와 같은 외형상의 성장만을 이룬 것은 아니다. 조직, 건물, 교인 수와 같은 토대가 든든해지면서 선교 활동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1986년 2월 20일 장수군 천천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회에 신정의 전도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신정의 전도사는 처음 개척자 중 하나였으며, 어려운 시절 불철주야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온 일꾼 중 하나였다. 이 일을 계기로 밖을 향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고, 농촌 선교 활동이 그 앞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어서 1986년 12월 20일부터 순창군 유등면에 있는 반석교회(권인수 전도사)를 지원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남원군 운봉면 매요리에 있는 매요교회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선교 활동을 점점 확대하였다. 해외 선교 활동 역

시 이 시기에 그 첫발을 떤었다. 1988년 9월 15일부터 태국의 팻담교회를 지원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 4. 공간의 변화

### 1) 개척 시기의 예배 공간

첫 예배 공간은 경원동 동산의원 3층이었다. 이곳에서 4개월을 지내고 1981년 11월 4일 교회는 진북동 290-4번지 건물 2층으로 이거하였다. 예배당은 작은 주방과 친교방 그리고 70석 정도의 예배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3년까지는 회중석 의자 없이, 성가대만 의자를 사용하였다.

### 2) 1차 예배당 건축

예배당 건축을 처음 공식화한 것은 1984년 7월 5일에 있었던 제2회 제직수련회였다. 교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로 7월 5일 밤 8시~10시 30분까지 열린 제직수련회는 창립 3주년을 맞는 교회의 첫 번째 과제로 예배당 건축을 선정하였다. 이후, 1984년 8월 20일 시작된 '기도 대행진'에서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을 '예배당 건축'으로 정하는 등 예배당 건축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혼신의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4년 12월 2일 건축위원회를 조직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 1차 예배당 건축위원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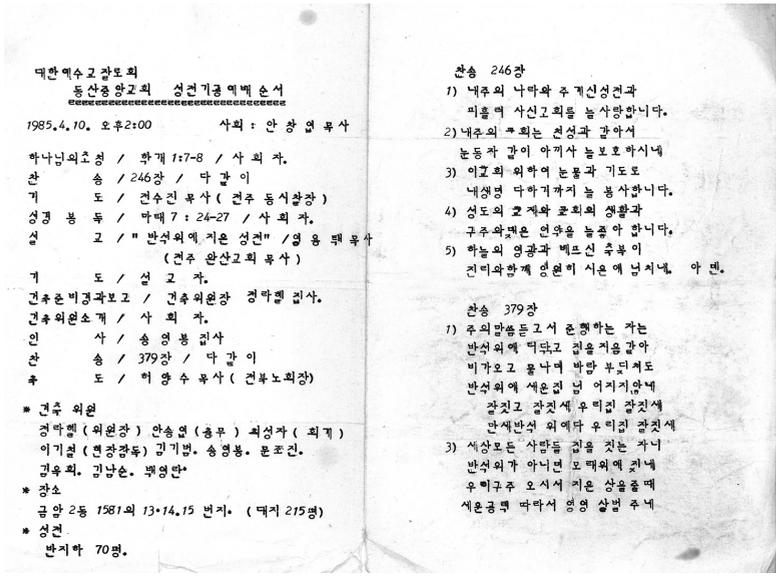
- 위원장 : 정라헬

- 총무 : 안송엽, 회계 : 최성자, 건축시공 : 이기철
- 위원 : 김기범 김남순 김옥희 문조진 백영란 송영봉
- 추가된 위원(1985년 5월 5일) : 김상순 김정은 류시영 윤석태 채양묵

건축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대지를 물색하였다. 전주 시내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1985년 1월 21일 금암2동 1581-13, 14, 15번지(현재의 예배당이 위치한 부지) 710.8㎡ (215평)을 총무 안송엽 집사가 나서서 약 2,1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교회 재정이 여의치 않아 중도금과 잔금은 총무 안송엽 집사로부터 3천만 원, 회계 최성자 집사로부터 5백만 원을 차입하여 등기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1985년 4월 10일 오후 2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현재의 지하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교인 수는 70명 정도여서 우선 반지하로 70평만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건축공사를 맡은 이기철 집사가 임의로 105평을 시공하여 최종적으로는 105평의 지하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1차 예배당 건축을 추진하던 당시 동산중앙교회의 교인은 70여 명 정도였다. 이들 모두가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였다. 틈틈이 건축공사에 참여하여 일손을 돕는가 하면, 건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헌금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건축을 위한 첫 번째 헌금이 1985년 1월 2일 대지 매입을 위해 있었다. 두 번째 헌금은 1985년 6월 2일 건축 헌신예배를 드리고 3년간 월 작성헌금을 하였다. 그 결과 1구좌당 1만 원으로 0.5구좌 18명, 1구좌 21명, 3구좌 2명, 10구좌 1명 등 51명이 총 63.5구좌를 작성하였다. 이는 매월 635,000원씩 3개월간의 헌금이므로 총 2,286만 원의 작성 금액이 마련된 것이었다. 또한 안창엽 목사는 건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00만 원의 빚으로 마련한 동양아파트 사택을 매각하고 금암2동 예배당 근처에 600만 원 짜리 반지하 전세로 사택을 옮겼다. 이처럼 온 교회가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비용에는 한참 모자랐다.

1차 예배당 건축을 위한 비용은 대지 매입에 2,150만 원, 건축공사에 7천만 원으로 총 9,150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당장 확보된 건축 기금은



지하 기공예배 자료

1,000만 원 정도에 그쳤다. 그러니 공사비 조달이 쉽지 않았다. 교회는 건축 대금을 치르기 위하여 대지를 담보로 건축위원들이 어깨보증을 하여 금암새마을금고에서 2,500만 원을(86.9.7 당회록) 차입하였으나 많이 모자랐다. 추가적으로 온호섭 집사, 류시영 집사, 임건웅 집사가 진안농업협동조합에 가옥을 근저당하고 연 12%의 저리로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권이철 장로는 순창새마을금고에서 신용대출로 2천만 원을 차입하고, 건축위원회 총무였던 안송엽 집사의 명의로도 신용대출을 받아 비용을 마련하였다. 건축 비용의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다 보니 이자만 해도 매월 75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다. 성도들이 작성한 건축헌금으로 매월의 이자를 납부하기에도 버거웠다. 당시 성도들은 이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빨간 헌금봉투를 제작하여 매월 1천 원 이상 10만 원까지 특별헌금을 약정하고 헌금하여 감당하였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지하 예배당을 완공하고 1985년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교인들이 힘을 모아 이사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 감격

적인 입당예배를 드렸다.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온 교인이 함께하는 축하 잔치를 가졌다. 비록 지하 예배당이었지만, 처음으로 셋방살이를 벗어난 일이었고, 모든 교인의 눈물진 기도와 땀이 스민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므로 이루어진 감격의 순간이었다.

1차 예배당 건축으로 지어진 현재의 예배당 지하 부분은 1988년 10월 23일 2차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입당하기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각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계단 맞은편의 방은 목양실 겸 회의실로 사용되었다. 2차 예배당 건축 후, 지하 공간은 아동부(유년부, 소년부) 예배실이 되었다. 1991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강단의 방향을 서쪽에서 남쪽으로 바꾸고 입구와 서쪽에 온돌방을 만들어 소모임실과 기도실로 사용하였다. 1993년 유년부실이 따로 마련되면서 소년부실이 되었다. 2005년부터는 중등부(11시)와 고등부(9시)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2014년에 있었던 리모델링 공사(9월 21일~10월 11일)로 인테리어를 산뜻하게 꾸미면서 서쪽의



지하 배당 건축공사(1985년 4~6월)

방들을 없애고 강단의 방향을 다시 서쪽으로 바꾸었으며, 동쪽의 큰 방 옆으로 방송실을 만들었다. 2018년의 본당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는 이 지하 공간이 다시 주일예배 처소가 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고등부실로, 2020년부터는 통합된 중·고등부실로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건물은 오랫동안 새벽기도회 공간으로,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경로선교대학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중·고등부 예배실, 방송실, 교사실 1·2,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완공된 지하 예배당 외관

### 3) 2차 예배당 건축

1987년 3월 8일 소집된 당회는 교회당 증축 공사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회에서는 지하 예배당으로 교회 부흥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축하자는 의견과 대지 구입과 건축 부채에 교인들의 부담이 누적되어 있으니 보류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이 안건을 제직회에 부의하였다. 1987년 3월 15일 소집된 제직회에서 류시영 집사가 “우리 교회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건축하자”라고 추진 동의 발언을 내자, 전폭적인 지지로 추가 건축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 일을 위해 종전의 건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롭게 재조직하되 인선은 당회에 일임하지는 정금석 집사의 제안을 채택하였으며, 건축 추진을 위해 4월 5일에 건축헌금 작정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온호섭 집사가 권이철 장로, 안송엽 장로, 온호섭 집사, 김을환 집사 등이 4,500만 원의 건축헌금을 사전 작정하였음을 발표하여 모든 제직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하였다.

같은 날(1987년 3월 15일), 당회가 다시 모여 제직회에서 가결한 건축(예배당 증축) 추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선 건축에 필요한 교회 남쪽 1581-19 대지 126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직회가 건축위원회의 발전적 해체와 재조직을 결의하고 이를 당회에 일임함에 따라, 새로운 건축위원 후보들을 선임하였다. 새로 선임된 위원들은 3월 21일에 예비 모임을 하고 3월 22일에 발표함으로써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 2차 예배당 건축위원회 조직

- 위원장 : 권이철, 부위원장 : 온호섭, 총무 : 안송엽, 회계 : 김을환
- 위원 : 김기범 송영봉(이상 장로)

고창남 김상순 류시영 이정석 장길환 조성환 진교헌 허용욱(이상 집사)

1987년 4월 5일 예배당 2차 건축(증축)을 위한 건축헌금 작정을 실시하였다. 1차에는 55,860,000원, 2차에는 28,813,000원의 헌금을 작정하여 총 84,673,000원의 작정 헌금이 확보되었다. 당시 본 회계 연간 수입 예산이 2천만 원 정도였고 교인 수가 150명 미만이었음을 감안할 때, 교인들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모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1987년 4월 11일에는 교회당 남측에 있는 1581-19의 대지 415.8m<sup>2</sup>(126평)를 매입하였다. 건물 사이의 간격을 3m 이상 확보하게 되어있던 당시 건축법을 충족하면서 예배당 증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건축하고자 하는 예배당 건물은 연건평 450평, 건축비는 2억 원이 예상되는 공사였다. 그러나 확보된 건축 기금은 84,673,000원의 작정된 금액뿐이었다. 건축위원



예배당 증축 기공예배(1987년 6월)

회 총무 안송엽 장로는 전주안디옥교회 이창승 집사의 코아설계사무소를 찾아가 건축 공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결과, 총 2억 원의 건축비 가운데 1억 원은 건물 완공 전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1억 원은 원금 상환 시까지 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하여 1987년 6월 증축예배를 드리고, 10월에 설계를 마친 후, 11월에 착공하였다.

약 1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1988년 10월 23일에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지하 예배당으로 입당한 것이 1985년 6월 16일이었으니, 불과 3년 4개월 만에 예배당을 증축한 것이었다. 입당예배에는 교인들의 가족과 타지로 떠났던 본 교회 출신 성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였다. 이날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는 하늘을 향해 색색의 풍선을 띄워 올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였다. 한편, 종탑에 기와지붕을 시공한 것은 한국의 전통에 대한 상징을 건축에 담기 원했던 안창엽 목사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완성된 건물의 1층에는 입구 우측(북쪽)으로

교회 사무실, 유년부실, 중등부실, 성가대실이 배치되었다. 입구 좌측(남쪽)으로는 화장실, 주방 겸 식당(현 경로실), 당회장실, 유치부실 등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남서쪽 공간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되었다. 2층과 3층은 예배실로 사용하였으며, 2층 현관에서 예배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좌·우측에 유아실이 마련되었다. 3층 위의 옥탑방은 기도실과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층 현관의 우측에 계단을 두었고, 건물 바깥의 전면 좌측에도 2층 예배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두었다.

1층 공간은 1993년에 1차 조정되었다. 담임목사 사택을 옮기면서 그 자리에 조리실, 여선교회실, 남선교회실, 선교실이 조성되었다. 기존에 식당이 있던 자리에 당회장실이 만들어지고, 당회장실·당회실 겸용으로 사용되던 출입구 좌측 첫 공간은 당회실이 되었다. 교회 사무실 안쪽 공간은 유년부실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1층 공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온돌 시설을 하였다. 1999년 7월에는 3층의 계단 앞 공간에 방송실을 설치하였다. 2000년 6월 21일 당회장실과 당회실의 위치를 맞바꿈 하였고, 2004년 4월에는 당회장실을 ‘사랑관’으



예배당 증축공사(1987~1988 10월)

로 옮기면서 유치부실을 넓게 확장하였다. 2005년 2층 예배실의 강단을 리모델링하였다(9월 4일 완공). 강단과 예배당 전면의 벽체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을 부착하여 시청각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또한 교회의 목회 철학을 담고 있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 그리고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 문구를 전면에 부착하여 교회의 지향점을 온 교우들이 공유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때, 3층에 유아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을 동반한 젊은 성도들의 예배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축된 예배당 외관(1988년)

2018년 8월 2일~11월 9일에는 건물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1층 주요 부분들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 전용 공간으로 만들었고, 2층과 3층 예배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쾌적하고 편리한 예배 공간을 이루었다. 4층의 옥탑방을 전면적에 포함시키고 수리하여 쾌적한 기도실을 만들었고, 새로 지어진 종합선교관과 각 층을 연결하여 전체 건물의 효율도를 높였다. 외관에 있어서는 건물 정면 외벽과 십자가 탑 외벽, 십자가 탑 지붕을 재시공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지어진 종합선교관과의 일체감도 높여주었다.

## II. 기구와 조직

---

### 1. 연도별 현황

#### 1) 연도별 직원 현황

##### ■ 1981년

###### • 교역자

목사 : 안창엽(8월 21일 '초청 임시당회장'으로 초빙. 10월 8일 전북노회에서 임시당회장  
으로 파송)

전도사 : 송마리아 차길송(8월 23일 취임)

##### ■ 1982년

###### • 교역자

담임목사 : 김종채, 전도사 : 송마리아 차길송(6월 27일 사임)

##### ■ 1983년

###### • 담임목사 : 김종채(6월 9일 사임) 안창엽(9월 18일 부임)

## ■ 1984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신선일
- 협동집사: 김기범 송영봉
- 서리집사: 김남순 김상순 김영애 김옥희 김의자 김정자 나상우 류시영  
문조진 박귀심 박복남 서경덕 손선우 신은순 신정의 윤상옥  
이기철 이양순 이우영 이채옥 정라헬 정정모 최복자 최성자  
황소진
- 6월 10일 추가 임명된 서리집사: 김옥자 김청옥 백영란 안송엽

## ■ 1985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동선옥(8월 18일 부임)
- 협동장로: 권이철
- 협동집사: 김기범 송영봉
- 협동권사: 김정은 송양순
- 서리집사: 강재희 구경자 권경안 김경숙 김광옥 김광일 김남순 김봉연  
김상순 김영애 김옥자 김옥희 김응수 김의자 김정식 김정자  
김청옥 김혜숙 나상우 류시영 문조진 박복남 박상열 박정순  
박중량 백영란 서경덕 소현순 신은순 신정이 안송엽 양희남  
유재순 윤상옥 윤석태 이기철 이양순 이요셉 이우영 이채옥  
임건웅 임혜경 전선옥 정라헬 정종모 정희자 채양묵 최복자  
최성자 황소진

## ■ 1986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동선옥
- 시무장로: 권이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5월 4일 시무 시작)
- 피택집사: 류시영 이기철 임건웅(5월 4일 시무 시작)

- 협동권사: 김정은 송양순(5월 4일 시무 시작)
- 서리집사: 남자 21명, 여자 37명

### ■ 1987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동선옥, 교육전도사: 양인석
- 시무장로: 권이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 안수집사 시무: 류시영 이기철 임건웅, 협동: 이정석 이형남 진교헌
- 권사 시무: 김정은 송양순, 협동: 이순의 이화분
- 서리집사: 남자 28명, 여자 40명, 명예 2명

### ■ 1988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동선옥, 교육전도사: 양인석
- 시무장로: 권이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 안수집사 시무: 류시영 임건웅, 협동: 이정석 진교헌
  - 권사 시무: 김정은 송양순, 협동: 이순의, 명예: 이화분
  - 서리집사: 남자 29명, 여자 58명, 명예집사 2명

### ■ 1989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동선옥 양인석
- 장로: 권이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류시영 은호섭
- 안수집사 시무: 임건웅 고창남 김을환 양기영 이정석 조성환 진교헌 허용욱  
협동: 이희성
- 권사 시무: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박영자 이양순 이정자  
명예: 이화분, 최순례
- 서리집사: 남자 25명, 여자 69명, 명예 2명

## ■ 1990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동선옥, 교육전도사: 양인석 최만규
- 장로       시무: 권이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류시영 은호섭  
              협동: 황경주
- 안수집사 시무: 임건웅 고창남 김을환 양기영 이정석 조성환 진교현 허용욱  
              협동: 이희성
- 권사       시무: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박영자 이양순 이정자  
              명예: 이화분
- 서리집사: 남자 31명, 여자 91명, 명예 2명

## 2) 연도별 조직 현황

### ■ 1981년

- 임시당회장: 안창엽

### ■ 1982년

- 당회장: 김중채(2월 14일 부임)

### ■ 1983년

- 당회장: 김중채(6월 9일 사임) 안창엽(9월 18일 부임)
- 제직회 감사: 송영봉 장정섭

### ■ 1984년

- 당회장: 안창엽

- 제직회 서기: 권경안 김경숙, 회계: 송영봉  
 전도부: 김기범(부장) 최복자 김남순 이양순 최성자  
 교육부: 문조진(부장) 정정모 김영애 손선우 (안송엽)  
 재정부: 정라헬(부장) 유시영 김옥희 (백영란)  
 봉사부: 나상우(부장) 황소진 신정의 박복남 김정자  
 관리부: 이기철(부장) 서경덕 김의자 박귀심 (김청옥)  
 축위부: 이우영(부장) 이채옥 신은순 윤상옥 (김옥자)  
 \* 괄호 안에 있는 이들은 6월 10일자로 신규 임명된 서리집사들

### ■ 1985년

- 당회장: 안창엽

### ■ 1986년

- 당회장: 안창엽, 당회 서기: 송영봉
- 제직회 서기: 권경안, 회계: 임건웅  
 전도부장 김기범, 교육부장 안송엽, 재정부장 권이철, 봉사부장 김남순,  
 관리부장 조성환, 경조부장 이기철

### ■ 1987년

- 당회장: 안창엽, 당회 서기: 송영봉
- 제직회 서기: 박정순 염번자, 회계: 임건웅 김을환  
 전도부장 김기범, 교육부장 안송엽, 재정부장 권이철, 봉사부장 배인순,  
 관리부장 조성환, 경조부장 이연우

### ■ 1988년

- 당회장: 안창엽, 당회 서기: 송영봉

- 제직회 서기 : 윤철, 부서기 : 김종희,  
회계 : 진교헌, 부회계 : 이정석 허용욱  
전도부장 김기범, 교육부장 안송엽, 재정부장 권이철, 봉사부장 배인순,  
관리부장 조성환, 경조부장 온호섭

### ■ 1989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안송엽
- 제직회 서기 : 윤철, 부서기 : 김종희  
회계 : 허용욱, 부회계 : 양기영 박홍중 정의식  
선교부장 류시영, 교육부장 김기범, 재정부장 송영봉, 봉사부장 김혜숙,  
관리부장 양병재, 경조부장 이연우

### ■ 1990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김기범
- 제직회 서기 : 김종희, 부서기 : 최경춘  
회계 : 김을환, 부회계 : 김창식 정의식 최정근, 특별회계 : 양기영  
전도부장 류시영, 선교부장 김기범, 교육부장 황경주, 재정부장 온호섭,  
홍보부장 허용욱, 봉사부장 이윤례, 구제부장 박주완, 관리부장 송영봉,  
경조부장 김상순

## 2. 행정기구

### 1) 개척 초기의 임시 행정기구

#### (1) 교회운영위원회

1981년 8월 23일 교회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안창엽 목사가 8월 21일 초청 임시당회장으로 초빙되었음을 고려할 때, 안창엽 목사가 조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1년 12월 13일 제직회가 조직되기까지는 이 교회운영위원회가 교회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8월 23일 차길송 전도사와 송마리아 전도사의 취임, 9월 27일 여전도회의 조직, 10월 8일 전북노회로부터의 설립 허락을 받기 위한 청원, 11월 4일 진북동 290-4번지로의 예배 처소 이전, 11월 22일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 개설 등의 일들이 이 교회운영위원회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 ■ 교회운영위원회 조직

- 서기 : 채규환 황소진
- 회계 : 김부자 정라헬
- 위원 : 강석분 송마리아 신정의 차길송

#### (2) 기획위원회

1983년 12월 제직수련회 자료의 조직도에 처음 등장한 기획위원회는 1985년 들어 3월 24일, 4월 7일, 5월 12일, 8월 11일, 9월 1일에 소집되었다. 같은 해 8월 4일에는 권이철 장로를 협동장로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기획위원으로 임명하는 광고가 후보에 수록되었다. 1985년 3월 24일과 4월 7일의 기획위원회가 건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소집되었던 점, 권이철 장로가 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점, 이후의 시기에는 교회 조직으로 등장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기획위원회는 당회가 조직되어 있

지 않은 당시 교회의 상황에서 당회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면서 제직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2) 당회와 공동의회

1986년 5월 4일 임직예식을 통해 처음으로 조직 당회가 구성되었다. 당회장 안창엽 목사를 비롯하여 권이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였다. 첫 당회는 1986년 5월 27일 오후 8시에 소집되었다. 회의 전 경건회에서는 찬송 376장(통일찬송가)을 부르고, 사도행전 5장 42절과 6장 7절을 읽은 후, 안창엽 목사가 “당회원의 임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당회는 당회를 매월 마지막 주일예배 후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일에 정기당회를 열고 교회의 일들을 협의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장로교회의 전통인 당회 중심의 교회 운영이 시작된 것이다. 당회가 조직된 후 1989년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모여 교회의 일들을 논의하였다. 1988년에는 매월 넷째 주일이 지난 토요일에 모이다가 1990년부터는 매

당 회 의 록					
년 월 일	주	1986년 5월 27일	오전	8시 ~ 10시	장소 당회장실
사회자	안창엽 목사	찬송	376	기도	목사님
성경	사행 5:42, 6:7	선교	목사님	제목	당회원의 임무
시기가 회원을 전명하니 역시 (5명중 3명) (말이 권익환과 권이철) 이 참석하였기에 회장은 (예배장우와목사) 개최됨 선언하고 이어서 선교와 권익환을 나눈다 (받은 다음 아래와 같이 본교회로 토의 및 결의하다.					
<b>본회 토의와 결의사항</b>					
1. 신앙 기도회 매주 금요일 교회에서 20:00~23:00 가. 요구 필요 6월 1일(월) 복회 나. 5주 되는 줄 5주근로자를 헌당회 주관하기로					
2. 부흥회 건 가. 1개월간 주일예배시 의전 음향하기로 나. 강사 권익, 스피커음					
3. 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후 결기로 함					
4. 헌당회 열주 주일 6월 29일 봉헌회 주일 경시행					
5. 여름 복회차 세미나 가. 장소: 연세 대학교 (6:30 ~ 2:1 각지) 나. 내용: 예배학, 선교학, 교인관리 다. 회비: 등록금 20,000 + 견우비 10,000 = 30,000 라. 결정: 목사님 가시기로 결정함					
상기와 같이 회부가 다함으로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결함으로 가결하고 (목사님)의 지도에 이어 회장이 폐회됨을 선언하니 (10시 40분)이다.					
				회장	안창엽
				서기	송영봉

첫 당회 회의록(1986년 5월 27일)



당회원 일동(1989년)

월 첫째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으로는 3월 4일 당회에서 정기당회 날짜를 매월 첫 주일 오후로 변경, 고정하였다.

초대 당회 서기는 송영봉 장로였다. 이후 송영봉 장로는 1988년까지 당회 서기를 역임하였고, 1989년에는 안송엽 장로 그리고 1990년에는 김기범 장로가 서기로 섬겼다. 1989년 11월 26일 당회에서 당회 서기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였다. 1986년 10월 14~16일에 있었던 제107회 전북노회 정기노회에 김기범, 안송엽 장로가 총대로 파송됨으로써 본 교회를 대표하는 첫 번째 장로 총대가 되었다. 1987년에는 안창엽 목사가 전북노회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겼다. 1988년 11월 12일의 2차 임직예식을 통해 류시영, 온호섭 장로가 당회원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1990년 12월 23일 당회는 송영봉 장로가 청원한 이명을 허락하였다.

공동의회 :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번째 공동의회는 1985년 1월 6일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였다. 1985년 10월 17일 공동의회에서는 협동장로였던 권이철 장로의 시무를 인준하고 김기범, 송영봉, 안송엽 집사를 장로 후보로 선택하였다. 한 주 후인 11월 3일 공동의회는 김광일, 류시영, 이기철, 임건웅 집사를 안수집사 후보로 선

택하고, 김정은 권사와 송양순 권사의 시무를 인준하였다. 이후 공동의회는 매해 연말에 예산과 결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집되었다. 1986년 5월 4일 당회가 조직되면서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하였다. 1988년 5월 8일과 15일에 소집된 공동의회는 2차 향존직 직원을 선출하였고, 1988년 10월 9일에 있었던 공동의회는 안창엽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을 가결하였다.

### 3) 제직회

#### (1) 제직회의 시작과 초기 활동

제직회는 1981년 12월 13일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1981년 10월 13일 전북노회로부터 동산중앙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받은 안창엽 목사(당시 전주효자동교회 담임)가 첫 번째 제직회장이었다. 제직회가 조직되면서 교회운영위원회를 대체하여 교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었다. 1982년 2월 14일 부임한 김종채 목사는 제직회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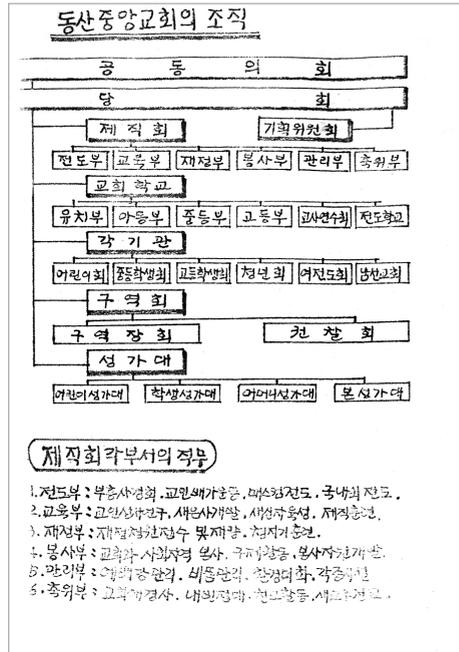
처음 조직된 제직들(1981년 12월 13일)



에도 제직수련회를 열어 연중 두 번의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1983년 제직수련회와 1984년 1차, 2차 제직수련회는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983년의 제직수련회는 안창엽 목사가 교회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직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4년 5월 31일의 제직수련회에서는 ‘교회 성장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의를 통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당면 과제와 그 추진 방안에 대해 제직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984년 7월 5일의 제직수련회를 통해서도 예배당 건축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이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85년의 1차 예배당 건축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세 차례의 제직수련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1983년 제직수련회

1983년 12월 19~20일 실시된 제직수련회의 주제는 ‘듣고 기도하고 일한다’였다.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 안의 봉사자들, 제직회운영의 실제, 1884년 동산중앙교회의 비전 등의 내용으로 안창엽 목사가 강의하였다. 이 수련회의 자료에는 교회의 조직도가 수록되어 있다. 당회 아래 기획위원회, 제직회(전도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관리부, 축위부), 교회학교(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연수회, 전도학교), 각 기관(어린이회, 중등학생회, 고등부 학생회, 청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구역회(구역장회, 권찰회), 성가대(어린이성가대, 학생성가대, 어머니성가대, 본성가대)를 두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로 교회를 조



처음 조직도(1983년 12월 19~20일 제직수련회 자료)

1984년도 제직회 조직

회장 : 안창엽  
 서기 : 권경안, 권영숙.  
 회계 : 송영봉, 김상순.  
 전도부장 : 김기범, 최부자.  
 (부원) 김남순, 이양순, 최성자.  
 교육부장 : 문조진.  
 (부원) 권경모, 김영애, 손선우. (안송엽)  
 재정부장 : 정나별  
 (부원) 유시영, 김유희 (백영란)  
 봉사부장 : 나상우, 황소진.  
 (부원) 신경이, 박부남, 김정자.  
 권택부장 : 이기철.  
 (부원) 서경덕, 권의자, 박귀심. (김정우)  
 축회부장 : 이우영.  
 (부원) 이재우, 신은순, 윤상우. (김유자)  
 \* 각 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대로 하겠음.  
 \* 오는달 수련회의 토론 그룹은 3그룹으로 나눕니다.  
 1) 전도부와 봉사부와 서기  
 2) 교육부와 권택부와 부서기  
 3) 재정부와 축회부와 두 회계  
 사람이 마땅히 우뚝을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  
 의 비밀을 밝은 자로 여기지이다. 그리고 밝은 자들  
 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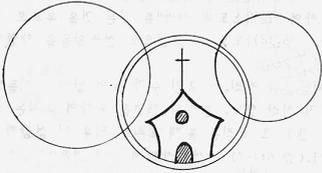
'84-1 제직수련회

— 주제 : 교회 성장과 제직 —

\* 5월 31일 ( 목 ) 오후 8:00 - 10:00 \*

수련회 시간 진행

8:00 - 8:10	찬송 외 시간
8:10 - 8:40	제1강의 "교회 성장과 제직"
8:40 - 9:10	제2강의 "교회 성장의 사력"
9:10 - 9:40	그룹 토의 (자물 나누며)
9:40 - 10:00	그룹 토의 결과 발표



대한예수교 동산중앙교회  
 장로회  
 전주시 전북동 290-4, 전화 5.3202

제직수련회 자료(1984년 5월 31일)

직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3) 1984년 1차 제직수련회

1984년 5월 31일(목) 오후 8:00~10:00에 '교회 성장과 제직'이라는 주제로 제직 수련회가 열렸다. 이 수련회는 교회가 당면한 우선 과제와 제직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제직들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 답을 찾고 실천의 가닥을 잡게 하는 수련회였다. 안창엽 목사가 '교회 성장과 제직'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이어서 『교회 성장의 열 가지 원리』(헤럴드 엘 픽케트 박사 저, 조해수 박사 역)란 책의 내용을 김기범 집사가 발제하였다. 이어서 18명의 제직이 3개 조로 나뉘어 '동산중앙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 (4) 1984년 2차 제직수련회

교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984년 7월 5일 밤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직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칭지기와 교회 제직’이란 주제로 송봉규 목사(전주성암교회 시무)가 주제 강의를 하고 안창엽 목사의 인도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의 주제는 1. 창립 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2. 우리 제직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때 예배당 건축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 (5) 1986년 이후 제직회의 활동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정기제직회 모임은 매월 첫째 주일에 있었다. 1990년부터는 당회가 첫째 주일에 모이게 되어, 정기제직회 모임은 매월 둘째 주일로 변경되었다. 1989년 12월 31일 주보는 ‘밤예배 후 새해 제직회를 조직하는 제직회 첫 모임’을 소집하고 있는데, 이전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매해 마지막 날 저녁에 모여 새해의 제직회를 조직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6년도 교회생활수첩에는 교회의 주요 조직과 그 임무가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제직회에는 전도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관리부, 경조부가 조직되어 교회의 살림들을 책임 맡고 있었다. 당시 조직도 상의 특징은 ‘교사연수원’과 ‘평신도 성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교회학교 교사들과 전체 교인들에게 성경과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후 조직의 형태는 약간의 조정을 거친다. 1986년에는 매년 2~3회 개원하였던 교사연수원이 1988년에는 매년 10~12회 개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89년에는 전도부의 명칭을 선교부로 변경하였다. 1990년에는 상당히 많은 손질이 가해진다. 전도부와 선교부를 분리하여, 전도부는 교회 성장에 관한 일을 맡고 선교부는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문서 및 방송 선교 등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교육부의 임무는 제직교육과 ‘평신도성경연구원’ 운영으로 축소하였는데, 교회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봉사부의 임무에서 ‘각종 구제에 관한 일’을 빼는 대신, 구제부를

신설하여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홍보부를 신설하였는데, 그 임무는 주로 교회의 행사를 알리고 기록하고 역사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것이었다. 한편 교회의 예산은 1988년도에 6,840만 원 그리고 1990년에 1억 원을 넘어섬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980년대 후반의 제직수련회로는 1989년과 1990년의 내용이 확인된다. 1989년 제직수련회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 주일 밤예배 후 진행되었다. “장로교와 제직” (이영호 교수, 한일신학교 기독교교육학), “제직과 청지기 사명” (송봉규 목사, 성암교회), “목회적 차원에서 제직의 사명” (백남운 목사, 효자동교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안창엽 목사)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9월 3일 주보는 “제직수련회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목회서신을 통해 제직들의 참여 독려를, 그리고 10월 29일 주보는 “제직수련회를 마치고”라는 목회서신에서 참석률 저조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다. 1990년 제직수련회는 9월 2일 밤예배 후 이동민 목사(시온영광교회)를 강사로 진행하였다.

한편, 1990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의 ‘창립 10주년을 위한 사업’ 토의를 위한 제직모임이 있었다.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라는 제목의 주제 강의와 소그룹 토의 및 종합 토의로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의 강의와 토의를 통해 이후 교회의 목회 방향과 정책의 기초가 ‘선교와 사랑의 현장’으로 채택되고 정립되었다. 이 일은 이 시기 제직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 3. 교회학교

#### 1) 운영

1981년 11월 22일 교회학교 아동부와 학생회(중·고등부)가 조직되었다. 교사는 김미혜, 양영실 집사와 차길송 전도사였다. 차길송 전도사는 1981년 8월 23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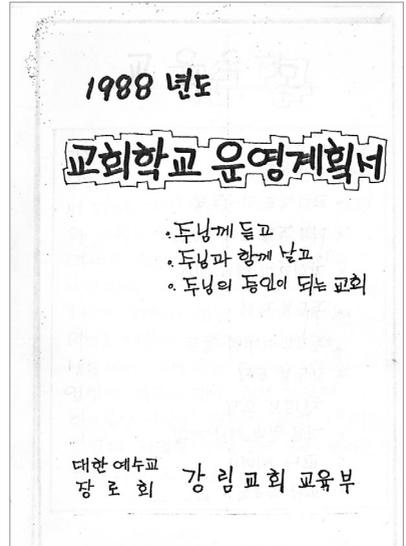
아동부 예배 모습(1981년)

전도사로 부임하여 1982년 6월 27일까지 교회학교와 청년회를 인도하였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두 개의 교회학교로 운영하다가 1984년 2월 5일 유치부와 아동부, 중등부와 고등부로 각각 분리 조직하였다. 1984년 5월 20일 주보에 따르면, 그 당시 중등부와 고등부의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초등부(아마도 유치부와 아동부를 묶어서 그렇게 부른 듯)는 오후 2시에 예배하였다. 1985년까지의 교회학교 조직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 1983년 중·고등부 교사 조직은 문집 「엘리에셀」과 「수련회 자료집」에서, 1984년 아동부 교사 조직은 1984년 8월 5일 주보의 아동부 헌신예배순서 담당자를 통해 그리고 1985년 교회학교 각 부서의 부장 명단은 1984년 12월 30일 자 주보에서 확인된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의 ‘연도별 편성 현황’에 정리되어 있다.

1992년 1월의 고등부 문집 「사랑」에 실린 ‘강림 고등부 연혁’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1988년 2차 예배당 건축으로 공간이 확충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이때 중등부는 본당 1층의 출입구 좌측의 사무실 옆 공간을 사용하고, 고등부는 예배실을 사용하였다. 유치부와 아

동부의 예배시간은 오후 2시에 모이다가, 1988년에는 오후 1시 40분, 1989년부터는 오전 9시로 변경되었다. 2차 예배당이 완공되면서 유치부실이 1층 출입구 좌측에 마련되었고, 아동부는 지하 공간을 사용하였다. 1986년 12월 7일 양인석 전도사가 교육전도사로 임명되었고, 1990년에는 최만규 전도사가 추가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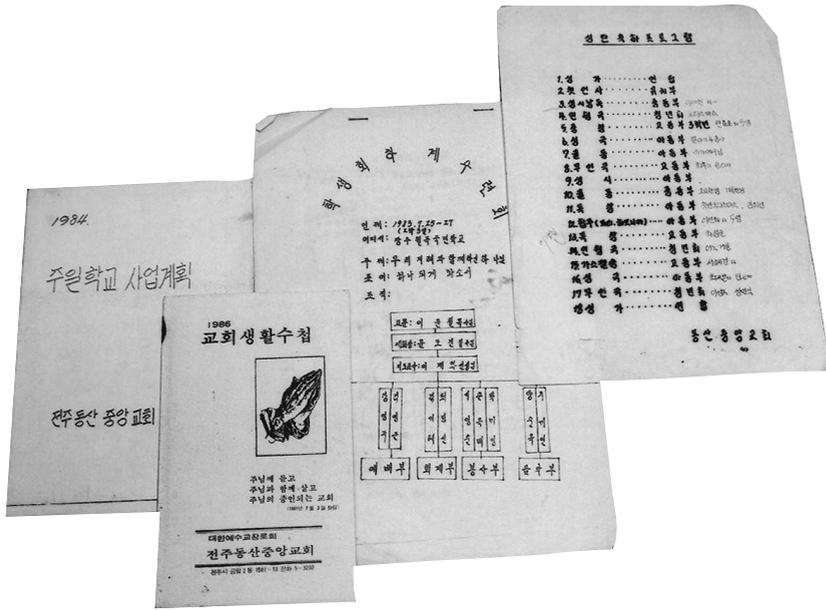
이 시기 교회학교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로 「1988년도 교회학교 운영계획서」가 남아있다. 이 자료에는 교회학교의 조직과 연간 설교 담당자, 행사계획, 교사 주소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 해의 교육을 미리 계획하고 협력을 효율화하고자



「1988년도 교회학교 운영계획서」



학생회 예배 모습(1982년, 기도자는 이감철 현재 장로)



1980년대의 여러가지 자료들

하는 꼼꼼함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동부의 설교는 부장과 양인석 전도사, 동선옥 전도사, 안창업 목사가 윤번으로 담당하면서 교사와 장로들이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다. 중·고등부 예배 설교는 양인석 전도사, 안창업 목사, 중등부와 고등부 부장이 윤번으로 담당하는 가운데 동선옥 전도사와 장로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한편, 이 시기 교회학교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86년도 아동부 예산서’가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아동부의 연간 예산액은 38만 원이었다. 중·고등부의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양질의 교사를 길러내려는 노력이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 기록상으로는 1983년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40분 교회학교(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그 시작이었다. 1985년 7월 8일에는 교회 창립 3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주제의 교사 수련회가 있었다. 중부교회에 시무하던 김동건



교사수련회(1983년)

목사가 “교사의 사명”을 강의하였고, 안창엽 목사가 “교육과 예배”를 강의하였다. 1985년 3월 10일과 7월 21일 주보의 교육면에는 총회가 설정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관심과 생각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도 록 돕는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돕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하도록 돕는 일로 요약된다.

1983년 12월 18~19일에 있었던 제직수련회의 자료 ‘조직도’를 보면, 교회학교 조직으로 교사연수원을 포함하고 있다. 1986년 교회 수첩은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두고 매년 2~3회 교사연수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정해두었다. 1987년부터는 교육부장 안송엽 장로와 양인석 전도사로 하여금 그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1985. 3.10

## 주 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는 교회

〔 기독교 교육의 목적 〕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실재와 구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예배와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들 알고, 우주와 자연 및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 성경으로 생활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품격으로 성장함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의 선교와 연합의 역군이 되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에 터한 사회건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주는데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에서 제정한 기독교 교육의 목표로, 교회학교 아동부, 중등부 교동부, 청년부에서 유의하여야 하며,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를 관심있게 교육할 무남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중앙교회**  
(전주시 진북동 290-4, 목사관 ☎ - 3202)

주보 표지(1985년 3월 10일)



강림성서대학(1989년)

1989년까지는 교육부장과 교육전도사가 책임을 맡다가, 1990년부터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전도사가 그 책임을 맡았다. 또한 1988년부터는 매월 둘째 주일밤예배 후로 시간을 고정하고 매년 10~12회 개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육과정은 성서연구, 신학연구, 기독교 교육학, 아동심리학, 상담학, 예배학, 찬송가학 등의 과목들로 규정되어 있었다. 1990년 12월 2일 당회는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황경주 장로를 선임하였다.

그밖에, 1984년 8월 12일 주보에는 교회학교(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버스 운행 시간을 작성하라는 광고를 실고 있다. 이즈음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차량운행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주일 중식은 교회가 진북동에서 금암동 현 위치에 지하 예배당을 건축하고 1985년 6월 16일 입당하고도 약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작하였다. 그전까지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점심으로 라면을 매식하였는데 식대는 교사들의 자비로 해결하였다. 당시 주일오후 찬양예배를 밤 7시에 드렸기 때문에 성인들의 중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 교회학교 아동부예배는 오후 2시였기 때문에 교

회학교 교사들의 중식을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와 기타 교회 업무에 관계된 이들에게는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그 외의 교인들에게서는 일정액의 중식 대금을 받으며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2) 활동

이 시기 교회학교의 활동 모습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주보는 교회학교 각 부서가 부서 헌신예배를 통해 주일밤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음

을 보여준다. 1983년에는 아동부가 2회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고, 중·고등부의 경우 1982년에 3회 그리고 1983년에 4회의 헌신예배가 있었다. 1984년에는 2회의 고등부 헌신예배만이 확인된다. 1985년 주보는 대체로 충실하게 남아있는 편인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각 부서의 연간 헌신예배 횟수는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모두 3회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6년부터는 각 부서가 연 4회 정도의 헌신예배를 드렸고, 헌신예배시간의 헌금이 교



교회학교 아동부(1990년)

회학교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되었다.

둘째로, 주일밤예배시간을 이용하여 일종의 발표회를 갖기도 하였다. 일례로 아동부는 1984년 8월 5일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학년별 장기자랑을 하였고, 고등부는 1985년 10월 27일 주일밤예배 때 ‘고등부 문학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록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부

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행사에서도 교회학교들의 참여가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째, 이 시기에도 연말에는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있었다(1983년 12월 18일, 1984년 12월 30일 주보 참조).

넷째,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실시되었다. 아동부는 1984년 7월 23~25일 그리고 1985년 7월 25~27일 예배당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였다. 1986년도 성경학교에는 평균 107명의 어린이가 참석하였다는 보고가 남아있다. 1989년에는 7월 24~26일 오전(9~12시)과 오후(4~7시)에 성경학교를 진행했음이 확인된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는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동부 프로그램으로는 레크리에이션, 구연동화, 노래 배우기, 그리기, 성구 암송, 연극 공연, 인형극 공연, VTR 시청 등이 있었다.

중·고등부 수련회의 첫 기록은 1983년 7월 25~27일 장수 월곡초등학교에서 “우리 겨레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였다. 1984년에는 중·고·청 연합으로 7월 26~28일에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1985년 중·고등부 수련회는 7월 25~27일 진안 모정교회에서 실시되었다. 1986년도 장수 신기교회에서 열린 여름수련회에 중등부 23명 고등부 27명이 참석했다는 보고와 1989년 여름 수련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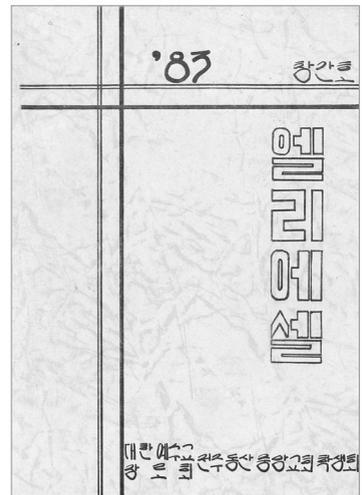
아동부 여름성경학교(1990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1988년)

7월 27~29일 장수 천천교회에서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90년에는 구이면 장파리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다섯째, 중·고등부는 학생회의 자치 활동이 활발하였다. 매일 임원회와 월례회를 통해 학생 자치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찬양 대회, 기도회, 전도대회, 등반대회, 야외예배, 체육대회, 설교대회, 자립원 봉사 활동 등으로 아동부에 비해 조금 더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다. 1983년의 중·고등부 학생회는 문집 「엘리에셀」을 남겼다. 이 자료는 당시 학생들과 교사 등 많은 이들의 글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조직표



학생회 문집 「엘리에셀」(1983년)



교회학교 중·고등부(1990년)

와 연간 행사표, 학생회 회칙 등의 중요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2년 1월의 고등부 문집 「사랑」에 실린 ‘강림 고등부 연혁’은 이 시기 중·고등부가 효자동의 자립원을 해마다 방문했음을 말해준다. 1989년 1월 29일에 있었던 ‘제5회 강림 찬양의 밤’ 행사 순서지가 자료로 남아있다. 횡수가 ‘5’ 회인 것으로 보아 1985년 10월 27일에 있었던 ‘고등부 문학의 밤’이 연례로 이어지며 ‘찬양의 밤’ 행사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9월 17일 밤예배 후에는 고등부가 가족찬송경연대회를 주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해마다 추석 즈음하여 가족찬양대회를 주최했던 것으로 보인다(1988년 행사계획에도 있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현재 전주강림교회 추수감사절 전통의 중요한 한 원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시의 중·고등부 학생회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 3) 연도별 조직 현황

#### ■ 교육 담당 교역자

- 1981년 8월 23일 차길송 전도사 취임(1982년 6월 27일 사임)
- 1984년 1월 1일 신선일 전도사 부임(1984년 12월 30일 사임)
- 1986년 12월 7일 양인석 교육전도사 임명
- 1989년 12월 31일 최만규 교육전도사 부임(1990. 9. 1 전임 전환)

#### ■ 1981~1982년

##### • 아동부

교사 : 김미혜, 양영실, 차길송

##### • 중·고등부

1981년 12월~1982년 2월 : 회장 유인용, 부회장 김인숙 한찬희, 총무 박양찬

1982년 3월~12월 : 회장 이감철, 부회장 이은미 성민식, 총무 김영근

#### ■ 1983년

##### • 아동부

조직 현황 알 수 없음

##### • 중·고등부

부장 : 문조진

교사 : 송미영 양순옥 이계화 조동민

상반기 : 회장 성민식, 부회장 최점순 이우희, 총무 이감철, 회계 최점선,  
서기 강혜숙

하반기 : 회장 이감철, 부회장 최점순, 총무 김영근

### ■ 유치부(1984~1990)

- 1984년

조직 현황 알 수 없음

- 1985년

부장 : 김영애

- 1986년

부장 : 김영애

- 1987년

부장 : 김영애, 교사 : 서수녀

- 1988년

부장 : 김영애, 교사 : 강정희 양미경 채수진

- 1989년

부장 : 김영애, 교사 : 김영애 서수녀 양미경 채수진

- 1990년

부장 : 김영애, 교사 : 김경남 양미경 이미영 이성옥

### ■ 아동부(1984~1990)

- 1984년

부장 : 정종모, 총무 : 양순옥, 교사 : 성원근 정선자 진수경

- 1985년

부장 : 권경안(4월 21일 김기범 집사로 변경)

- 1986년

부장 : 김기범, 총무 : 이감철, 서기 : 이인자, 회계 : 이연우

교사 : 강혜숙 김경희 김봉현 손옥배 송우석 안효초 양자경 이경희 이성옥

정금석 최경숙 최점순

•1987년

부장 : 김기범, 총무 정금석

교사 : 강정희 강혜숙 김경희 김옥자 김옥희 김완진 나영자 안진희 안효초  
양경희 양병재 엄미리 유춘앵 이숙자 이연우 장석균 정진아 채수진

•1988년

부장 : 류시영

교사 : 강혜숙 권금순 김오순 김옥희 김완진 송수정 안진희 안효초 양병재  
유춘앵 이미영 이양순 임미현

•1989년

부장 : 진교현

교사 : 김경희 김오순 김완진 김현경 성민식 송수정 안진희 양병재 양태섭  
원지현 유춘앵 이감철 이성옥 이연우 임미현 최현주 허선숙

•1990년

부장 : 진교현

교사 : 김성녀 김완진 김지은 김현경 김현실 성민식 안진희 양수경 양재필  
원지현 이감철 이연우 이영춘 이인자 이하구 허선숙 황의찬

■ 중등부(1984~1990)

•1984년

조직 현황 알 수 없음

•1985년

부장 : 정종모

회장 이강원, 부회장 이창진, 총무 이상기

•1986년

부장 : 송영봉

교사 : 김대용 박용규 안길권 전화순

회장 안선미, 부회장 유인섭, 총무 양지영, 서기 온수정, 회계 김성남

• 1987년

부장 : 송영봉, 총무 안길권

교사 : 김대용 송우석 양미경 이하구 정종석

회장 김기영, 부회장 임대식, 총무 최재정, 서기 장지연, 회계 조윤희

• 1988년

부장 : 진교현

교사 : 송관식 송우석 안길권 양미경 이하구 진영옥

회장 임대식, 부회장 양옥경, 총무 채석진, 서기 이병섭, 회계 김완실

• 1989년

부장 : 김을환

교사 : 김미영 안길권 안효초 온기천 이하구 홍성민

회장 박상봉, 부회장 채석진, 총무 김신, 서기 이경아, 회계 진선미

• 1990년

부장 : 이정석

교사 : 김미영 박정애 송수정 안길권 안효초 한은숙

회장 김신, 부회장 유루미, 총무 이강규, 서기 안진경, 회계 이연옥

■ **고등부(1984~1990)**

• 1984년

회장 손옥배, 부회장 이인자 강성환, 총무 최병규

• 1985년

부장 : 류시영

회장 강성환, 부회장 정진아

• 1986년

부장 : 류시영

교사 : 김종희 양미경 양인석 임구영

회장 김인권, 부회장 송수정, 총무 이대원, 서기 신용재, 회계 황주택

•1987년

부장 : 이정석

교사 : 송기찬 송성희 이병호 임구영 최점순

회장 양재필, 부회장 안효정, 총무 이창진, 서기 유영경, 회계 김경희

•1988년

부장 : 이정석

교사 : 김경희 김인옥 성원근 유춘앵 임구영

회장 진은상, 부회장 김기운 안선미, 총무 유인섭, 서기 양지영,

회계 채은송

•1989년

부장 : 이정석

교사 : 김성기 원도연 이병호 정은하 최점순

회장 최재정, 부회장 김병욱, 총무 김기영, 서기 김완실, 회계 김혜영

•1990년

부장 : 이희성

교사 : 김영선 원도연 임미현 채수진 홍성민 황의욱

회장 임대식, 부회장 최정숙, 서기 이현준, 회계 김완실

## 4. 자치회

### 1) 청년회

#### (1) 조직과 운영

청년회는 박용규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1982년 6월 13일 창립되었다. 청년부의 활동이 기록으로 처음 확인되는 1983년 10월 2일 주보에 따르면, 청년부의 정기 모임 시간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였다. 모임 시간은 이후 7시, 7시 30분 등으로 수차례 변경되지만, 계속해서 토요일 밤에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간은 안창엽 목사의 성서 강해와 청년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1983년 11월 6일 주보는 주일밤예배를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린다는 광고를 싣고 있다. 주보의 헌신예배에 관한 기록은 1984년에도 1회, 1985년에는 3회가 확인되는데, 1985년도 청년회 월별 행사 계획표는 총 5회의 헌신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년회(1985년)

1987년부터는 양인석 전  
 도사가 청년부 지도 교역자로  
 목회를 시작하였다. 1987년  
 까지 하나로 운영되던 청년회  
 가 1988년부터는 제1청년회  
 와 제2청년회로 나뉘어 두 개  
 의 청년회로 활동하였다. 1청  
 년회는 대학생 나이로, 2청년  
 회는 대학 졸업자 나이로 편성  
 되었다. 현재의 지하 보일러  
 실 옆 창고 공간이 1청년회의  
 모임 공간이었다. 2청년회는  
 현재의 지하 방송실 뒤의 교  
 사실을 모임 공간으로 사용하  
 였다. ‘1990년 제2청년회 정  
 기총회’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를 보면, 1청년회와 2청년회



청년회(1989년)

가 완전히 분리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였음이 확인된다. 1990년 9월 2일 주보에는 청년부 모임 시간을 주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다. 토요일 저녁에 모이던 것을 주일 오후로 바꾼 것이다. 이 시기 청년회의 활동 인원은 1·2청년회를 합하여 20~30여 명 선이었다. 활발한 성경공부가 이루어졌으며 커리큘럼, 활동의 내용과 형식, 사업의 계획과 집행 등에 있어서 매우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였다.

## (2) 활동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청년부의 첫 수련회는 교회 창립 3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청년신앙수련회(1984년)

1984년 7월 3일(화) 밤에 열렸던 ‘청년신앙수련회’이다. 주제는 “청년과 신앙”이었고, 강사는 당시 한일신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던 군산중동성결교회 이병렬 장로였다. 같은 해 7월 26~28일에는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 2월 11~15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주제로 교회당에서 신앙수련회가 진행되었다. 1985년의 여름수련회는 7월 29~31일 순창군 구미교회당에서 열렸고, 1985년 10월 28일~11월 1일에는 ‘가을철 청년신앙수련회’를 매일 밤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1988년도 교회학교 운영계획서, 1990년도 제2청년부 행사계획과 정기총회 자료, 1990년도 제2청년회 주보 등이 이 시기 전주강림교회 청년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남아있다. 연간 주요 활동으로는 임역원 단합대회, 환경정리, 신입생 환영회, 동반, 야외예배, 체육대회, 수련회, 장청대회 참가, 찬양의 밤 등이 있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교회의 주요 절기 행사들에도 함께 하였다. 1990년에는 도서 실도 운영하였다. 주일 모임은 1부는 예배, 2부는 성경 각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발

제와 토론, 3부는 노래와 율동 등으로 운영되었다. 1990년도 2청년부 회계 보고 내용을 보면 교회 보조 316,200원, 주일헌금 184,460원, 회비 54,700원, 찬조금 282,000원, 헌신예배 헌금 63,990원 등 총 910,520원의 금액으로 한 해의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이 시기 청년회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했다. 일례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의 철야 기도회를 주관하였다. 1984년 5월 25일의 기도회 자료를 통해 보면, 이 기도회는 금요일 밤 11시에 시작되어 이튿날 새벽 4시 30분까지 이어진 후, 4시 30분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내용은 찬송, 예배, 합심기도, 간증, 다과 및 토의, 부별 모임, 합심기도, 새찬송가 배우기, 개인기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1984년 8월 20일~9월 22일까지 5주간 동안 예배당 건축 문제 등을 두고 각 기관이 매일 밤 8~9시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기도 대행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청년부는 5주 중 2주를 담당하였고 행사 전체를 주관하였다. 그밖에도 청년회는 교인들의 찬송 지도(1984년 6월 27일 밤, 1985년 11월 17일 밤 등)를 담당하였고, 1985년 8월 10일(토) 밤 8시에는 “교과와 이단들”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교회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도 기여하였다.

이 시기 청년부 활동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장청(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예장 통합 교단 소속 청년들의 연합 기구) 연합회 활동을 통해 에큐메니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이다. 1985년 8월 11일 주보는 36차 장청 전국대회가 전주 완산교회당에서 8월 13~16일에 개최된다는 광고를 실고 있다. 뒷날 2명의 전국 장청 회장을 배출하기도 했던 장청 연합회 활동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큐메니컬운동은 교회 간의 연합을 추구하고, 신앙의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정신이 구현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교회들의 협력 활동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산업 선교나 도시 빈민 선교와 같은 민중 선교 활동, 인권의 향상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등으로 전개된 바 있다. 한국의 환경보호 혹은 생태계 보전 운동 역시 이 에큐메니컬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전주장립교회 청년들은 장청 활동을 통해, 이러한 에큐메니컬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였다. 남겨진 몇몇 자료들이 그 흔적들을 보여준다. 1989년 5월 21일 주보에는 “89년도 청년 선언”이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40주년을 맞이한 장청의 청년 선언문을 발췌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당 시대 한반도의 역사 위에서 정의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 행동을 분별하면서, 그 일에 힘껏 참여하고자 하는 다짐을 담고 있다. 1989년도의 하기 수련회 역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라는 주제를 내걸고 시대적 상황의 눈으로 성서와 복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1990년에는 “청년 선교 교육대회”(1월 22~24일, 효자동 교회), 겨울과 여름의 장청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제1청년회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 유인물은 광주 민중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등을 기독교청년의 눈으로 정리하고 알리고자 한 노력이었다.

당시 청년회의 사회참여적 영성의 형성에는 양인석 전도사(현 담임목사)와 함께 한 성경공부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인석 전도사는 기독교청년들이 기독교 성인으로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성적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기록한 『성경의 형성사』(박창환 저), 『생명나무와 가시덤불』(장일선 저) 등의 기초 신학서적을 필독서로 정하고 성경의 신학적 이해를 위해 다양한 신학서적들을 함께 탐독하며 공부하였다. 안병무 박사(한신대 교수)의 “역사적 예수”와 “민중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등을 공부하며 사회학적 성경공부에 관심을 가졌으며, 김경재 교수, 변



하기 수련회 자료집(1989년)

선환 교수의 문화신학 등에 대해서도 공부하며 신학적 지평을 넓혀 갔다.

또한 당시 한국교회와 사회의 개혁에 앞장선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의 설교 테  
임과 한신대학교 교수들의 강의 테임 등 80년대 중 후반의 교회 변혁과 사회 변혁을  
역설하는 목사와 교수들의 강연을 구입해서 듣고 토론했다. 또한 그 시대 대학생들  
의 사회과학 필독서로 알려진 『전환시대의 논리』,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국전쟁  
사』 등 사회과학 서적들도 부지런히 읽고 토론하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발견하  
려고 애썼고, 분단된 조국의 문제점들을 기독교 역사관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었다.

이 시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논쟁점은 “개인구원”인가 “사회구원”인가 하는  
문제였다. 박정희·전두환의 군사 독재로 이어진 정부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  
고, 종교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  
였다. 이로 인해서 많은 대학생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노동자, 농민 등 사회 약자  
들을 향한 정치적 탄압에 침묵하는 교회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기독교청년들 내  
서도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이기에 교회가 사회적 모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  
장과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 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양인석 전도사와 전주강림교회 청년회는 이런 한국교회의 분위기에 대해 도  
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대해 끝까지 교회가 침묵한다면 세상이 교회  
를 외면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보았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부  
패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회참여적 영성에 기반한 성경공부에 청년들은 점차 적극적으로 호응하였  
다. 매주 토요일 10여 명에서 시작한 성경공부는 20~30여 명까지 모여서 열정적으  
로 신학 토론을 하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뜨겁게 논쟁하  
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청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1·2청년회로 나누었으나, 토요  
성경공부 모임은 계속해서 함께 모였다. 이 청년들이 주일 청년회를 이끌고, 교회  
학교 교사로도 활동하며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주강림교회 청년회의 토요  
성경공부 모임이 전주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기성교회에 실망해서 방황하던 청년

들이 전주강림교회 청년회에 찾아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함께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을 꿈꾸던 이 시기의 청년회 주역들은 점차 장청 전북노회연합회를 주도해 나가고, 장청전국연합회에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그리고 두 명의 청년이 장청전국연합회 회장과 EYCK(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 (3) 연도별 조직 현황

- 1982년

청년회장 박용규

- 1983년

청년회장 조동민

- 1984년

회장 양순옥, 부회장 홍성민, 총무 이감철, 회계 이성옥, 서기 성민식

- 1985년

부장 : 안송엽

회장 홍성민, 부회장 박승이, 총무 송우석, 회계 이성화

- 1986년

부장 : 온호섭

회장 박승이, 부회장 이성옥, 총무 송우석, 서기 양자경, 회계 박현숙

- 1987년

부장 : 온호섭

회장 송우석, 부회장 양자경, 총무 안효초, 서기 최점순, 회계 양미경

- 1988년

1청년회

부장 : 송영봉

회장 안효초, 총무 채수진, 서기 김완진, 회계 이미영

## 2청년회

부장 : 송영봉

회장 임구영, 총무 성원근, 서기 양미경, 회계 김인옥

### •1989년

## 1청년회

부장 : 김기범

회장 임구영, 부회장 이성화, 총무 성민식, 서기 양미경, 회계 이미영

## 2청년회

부장 : 안송엽

회장 홍성민, 부회장 송수정, 총무 임미현, 서기 허선숙, 회계 안진희

### •1990년

## 1청년회

부장 : 류시영

회장 임구영, 부회장 김성녀, 총무 송우현, 서기 김완진, 회계 김경희

## 2청년회

부장 : 온호섭

회장 황의욱, 부회장 양수경, 총무 양재필, 서기 박현주, 회계 이영춘

## 2)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 (1) 조직과 활동

1981년 9월 27일에 조직된 여전도회(회장: 김부자)는 1981년 8월 23일 조직된 교회운영위원회에 이어 모든 조직 중 두 번째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1981년 11월 22일에 만들어진 교회학교, 1981년 12월 13일에 조직된 제직회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 교회운영위원회는 제직회가 조직되기 이전의 한시적인 조직이었다고 보면, 현존하

는 전주강림교회 조직들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조직이 바로 여전도회이다. 1986년까지 하나로 활동하던 여전도회는 1987년과 1988년에는 제1여전도회와 제2여전도회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1989년과 1990년에는 제3여전도회까지 설치되어 세 개의 여전도회가 활동하였다. 한편, 1990년 연말의 기도 제목에는 제4여전도회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또 하나의 여전도회가 증설되었던 것 같다. 급속한 성장과 조직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전도회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84년 7월 1일의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처음이다. 헌신예배는 1984년에 2회, 1985년에 3회 드렸다. 연 3회 정도가 이 시기의 정해진 횟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84년 8월 20일~9월 22일 진행되었던 5주간의 “기도 대행진”에서는 2주간을 담당하였다. 월례회 모임은 1985년 8월 25일 주보에 처음 확인되는데, “월례회”라는 모임 명칭으로 볼 때, 매월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1985년 6월에는 전북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성가제에도 참가하였다. 초창기부터 노회 연합 활동에 적극 참여했음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로 1985년 7월 14일 여전도회 헌신예배에서는 전북노회 여전도회연합회 회장 박순



여전도회 연합 성가제 참가(1985년 5월 31일)



여전도회 아유회(1987년)



1여전도회(1989년)

자 권사가 설교하고 여전도회연합회 중창단이 특별찬송을 했으며, 여전도회연합회에서 건축헌금을 하였다. 1985년 9월 12일~11월에는 매주 목요일 10시~11시 30분까지 여전도회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10월에는 야외예배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여전도회는 지속적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9년 6월 24일 제2여전도회는 경로잔치를 주최하였다. 1989년 8월 7일에는 1여전도회가 수련회를 가졌고, 2여전도회는 8월 24일 수양산 기도원에서 송마리아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매월 넷째 주의 기관별 월례회와 주일밤예배 때의 기관별 헌신예배가 각 기관의 활동에 주된 축이 되었을 것이다. 월례회의 경우, 1986년에는 매월 넷째 주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월례회로 모였다. 1987년에는 여전도회가 2개로 나뉘면서 1여전도회는 넷째 주, 2여전도회는 셋째 주에 모였다. 이후 월례회 활동은 점차 넷째 주로 고정되어 갔다.

남선교회는 1983년 12월 4일 창립총회를 통해 회장 김기범 집사, 서기 권경안 집사, 회계 송영봉 집사로 조직되었다. 1984년 5월 20일 주보의 월례회 광고로 보



남선교회 수련회(1988년)



남선교회(1990년)

아 창립 초기부터 매월 정기 모임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84년도에 2회 그리고 1985년도에 3회의 헌신예배를 드린 것이 확인된다. 1984년 8월 20일~9월 22일에 진행된 5주간의 ‘기도대행진’에서 한 주간을 담당하였고, 1985년 9월 15일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8월 26일~9월 15일에 진행된 ‘전교인 20일 작정기도’ 기간에는 차편을 책임지기도 하였다. 남선교회는 이 시기 내내 한 개의 선교회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임원의 숫자와 활동 부서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 (2) 남선교회의 연도별 조직 현황

- 1984년  
회장 김기범, 서기 권경안, 회계 송영봉
- 1985년  
회장 송영봉
- 1986년

- 회장 류시영, 부회장 임건웅, 총무 이연우, 서기 정금석, 회계 양병재
- 1987년
  - 회장 온호섭, 부회장 장길환, 총무 이연우, 서기 정금석, 회계 양병재
- 1988년
  - 회장 양기영, 부회장 박홍종, 총무 유기운, 서기 안길권, 회계 박주완
- 1989년
  - 회장 양기영, 부회장 박홍종, 총무 조성환
  - 서기 안길권 박주완, 회계 유기운 신부호 정의식
- 1990년
  - 회장 진교현, 부회장 이희성, 총무 안길권
  - 서기 이한규 강형희, 회계 양병재 이영규

### (3) 여전도회의 연도별 조직 현황

- 1981년
  - 여전도 회장 : 김부자
- 1982~1983년
  - 조직 현황 알 수 없음
- 1984년
  - 회장 정라헬, 부회장 김영애, 총무 이양순, 서기 김경숙, 회계 김옥희
- 1985년
  - 조직 현황 알 수 없음
- 1986년
  - 회장 이양순, 부회장 최성자
  - 서기 김경숙, 부서기 백영란, 회계 김남순, 부회계 임혜경
- 1987년
  - 1여전도회

회장 박영자, 부회장 김남순, 총무 이양순  
서기 김광옥, 부서기 양희남, 회계 김영희, 부회계 염번자

2여전도회

회장 김영애, 부회장 김옥자, 총무 배인순  
서기 이해정, 부서기 김옥희, 회계 소현순, 부회계 김승희

• 1988년

1여전도회

회장 박영자, 부회장 이양순, 총무 김남순  
서기 염번자, 부서기 김영희, 회계 박정순, 부회계 황등자

2여전도회

회장 김영애, 부회장 배인순, 총무 김옥희  
서기 이해정, 부서기 민정애, 회계 김옥자, 부회계 김승희

• 1989년

1여전도회

회장 이양순, 부회장 신은순, 총무 박영자, 서기 염번자 이윤례,  
회계 설순자 이영자

2여전도회

회장 배인순, 부회장 김현순, 총무 이해정, 서기 나영자 김선주,  
회계 김옥자 김승희

3여전도회

회장 김옥희, 부회장 신운자, 총무 김미영, 서기 양지순 정양덕,  
회계 권순남 양지현

• 1990년

1여전도회

회장 이양순, 부회장 신은순, 총무 박영자  
서기 염번자 이윤례, 회계 설순자 이영자

2여전도회

회장 배인순, 부회장 김현순, 총무 김옥자  
서기 김선주 이정순, 회계 박정순 김승희

3여전도회

회장 김옥희, 부회장 신운자, 총무 양지순  
서기 이금희 노윤숙, 회계 양지현 박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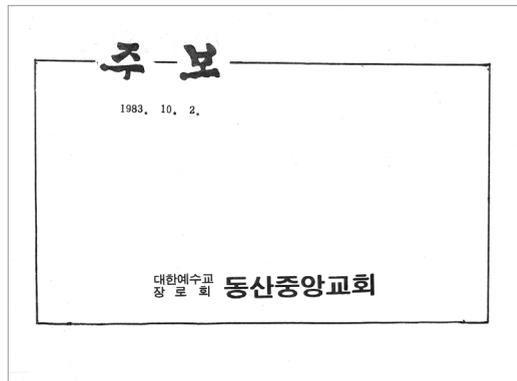
### Ⅲ. 강림 공동체의 삶

#### 1. 예배

##### 1) 주일예배와 성례전

###### (1) 주일예배의 형성과 변화

개척 초기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초기 개척 교인이었던 신은순 권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채규환 집사의 부친인 채홍학 목사가 설교를 담당하였고, 송마리아 전도사가 협력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신학생이었던 차길송 전도사 역시 힘을 보태고 있었다. 채홍학 목사는 순복음 교단 출신의 은퇴한 목사였으며, 송마리아 전도사는 신유 등의 은사주의 순회 사역자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개척 초기 예배의 모습은 오순절 전통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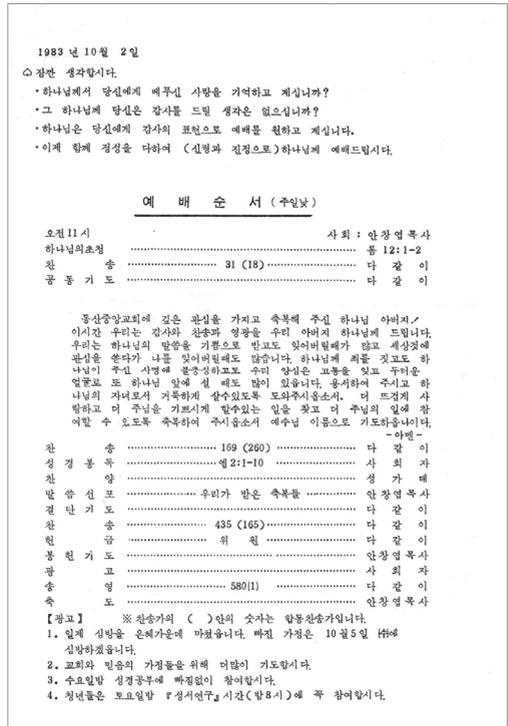
가장 오래된 주보의 표지(1983년 10월 2일)

서 송마리아 전도사의 소개로 효자동교회의 안창엽 목사가 주일 오후의 성경공부를 지도하면서 장로교 예배 전통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동산중앙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83년 10월 2일 주보다. 안창엽 목사 부임 직후인데, 이때부터 전주강림교회의 예배가 형성되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의 초청-찬송 31(18)-공동기도-찬송 169(260)-성경봉독 엠 2:1~10-찬양(성가대)-말씀선포 “우리가 받은 축복들”-결단기도-찬송 435(165)-헌금-봉헌기도-광고-송영 580(1)-축도

이를 통해 몇 가지 요점을 짚어볼 수 있다. ① ‘잠깐 생각합시다’라는 예배 전 묵상 자료를 제시하여 예배 참석자들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하였다. ② 예배순서에 신앙고백, 교독, 대표기도가 없다. ③ 성경 본문은 하나만 사용하였으며, 사회자가 봉독하였다. ④ 마지막 찬양은 ‘파송의 찬양’이 아닌 ‘송영’이었다. ⑤ 통일찬송가를 사용하면서 ( ) 표시로 합동찬송가를 병기하였다. ⑥ ‘공동기도’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고백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를 드렸는데, ‘용서의 선언’ 순서는 없다. ⑦ 성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⑧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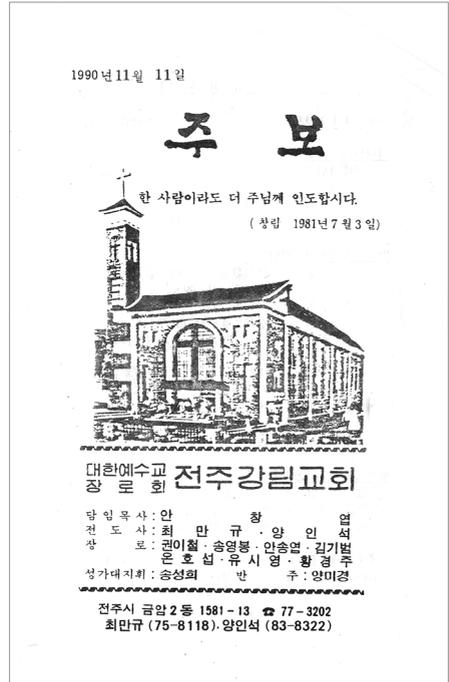


주일예배(1983년 10월 2일)



경봉독, 찬양(성가대), 설교, 기도(설교자), 찬송, 헌금, 교회소식이 들어있으며, 성찬예식이 있을 때는 헌금 순서 후에 진행하였다. “세상으로 파송과 축복”에는 송영, 오늘의 위탁, 축도가 들어있으며 모두 일어서도록 표시되어 있다. 신앙고백과 오늘의 위탁 순서가 새로 들어가고, 성서교독 순서는 다시 제외되었다. 성경봉독을 구약, 신약 두 본문으로 사용한 것도 이때부터다. 1983년에 비해 교회소식 순서는 헌금 뒤로 옮겨갔다. 교회소식은 처음에 광고로 표기하다가 교회소식으로, 1984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성도의 소식으로 명칭이 고정된다. 한편, 1984년 11월 25일 주보는 “예배순서는 말없이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를 주일예배순서의 맨 아래에 기록하고 있다. 인도자의 말을 최소화하고 진행하는 현재의 예배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주일예배의 형태에 큰 변화는 없었다. 1986년도의 예배 형태는 1985년도와 동일하다. 1987년도 주보가 남아있지 않으나, 1988년과 1989년까지도 동일한 예배 형태가 유지되었다. 1986년 4월 16일 임직예식을 통하여 시무장로들이 세워졌으므로, 주일예배의 대표기도는 시무장로들이 윤번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 12월 30일 주보는 ‘1991년 1월 20일부터는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 한다는 광고를 실고 있다. 예배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며 헌금하던 것에서, 예배에 들어올 때 헌금을 하고 예배시간 중에는 이미 드러진 헌금을 봉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일들이 시기에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이 시기 내내 주일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한



주보 표지(1990년)

차례만 드렸다.

## (2) 성례전(세례와 성찬)

전주강림교회 최초의 성례식은 1981년 12월 13일에 있었다. 당시에는 담임목사가 없었고, 안창엽 목사가 임시당회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안창엽 목사가 세례예식과 성찬예식을 집례했다. 그러나 당시 세례자 명단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세례식은 1983년 11월 6일에 이루어졌다. 손옥배, 오봉근, 최순규가 세례를 받았고, 강성환, 강정희, 강혜숙, 양수경, 이명희, 이성옥, 정선자가 학습의례를 치렀다. 이들은 10월 31일(월)부터 11월 3일(목)까지 나흘 동안 밤 7시 30분~9시 30분에 교육을 받고 토요일인 11월 5일 오후 3시 30분에 문답을 치렀다. 이때의 학습·세례예식은 ‘성경봉독’ 후, 성가대의 ‘찬양’ 전에 진행되었다. 이후 학습 및 세례예식은 매년 봄과 가을에 시행하였는데, 봄 세례는 대개 종려주일에 맞추어 시행하였고, 1987년에만 부활주일에 세례예식이 있었다. 1984년 4월 22일과 11월 4일, 1985년 4월 7일과 10월 6일에 행해졌다. 1986년에는 3월 23일과



첫 성찬예식(1981년 12월 13일)



첫 세례예식(1981년 12월 13일)



첫 세례 및 학습자들(1981년 12월 13일)

11월 8일, 1987년에는 4월 19일과 10월 4일, 1988년에는 3월 27일과 12월 4일, 1989년에는 3월 19일과 11월 26일, 1990년에는 4월 8일과 10월 28일에 각각 세례예식을 행하였다.

1983년 11월 6일의 성찬예식은 봉헌기도와 광고 사이에 순서가 들어갔다. 찬송가 416장(453장)을 1~2절과 3~4절로 나누어, 시작할 때 1~2절을 부르고, 마칠 때 3~4절을 불렀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30절이 사용되었다. 12월 4일에도 세례예식과 성찬예식이 행해졌다. 이날의 성찬예식 순서는 성찬으로의 초대로 시작하고 있다. 이후 성찬예식은 매월 첫째 주일에 행하되, 간혹 예외적인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어느 때인가부터 성찬예식이 성도의 소식 뒤로 옮겨졌다가 1990년에는 다시 성도의 소식 앞으로 옮겨가서 헌금과 성도의 소식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 2) 주일밤예배

주일밤에는 ‘주일밤찬양예배’가 있었다. 그런데 주일밤찬양예배는 이후 시간과 명칭 등에서 많은 변동을 겪게 된다. 1988년 5월 8일 주보를 보면, 이 주일밤찬양예배의 시간이 주일 오후 4시로 변경되어 있다. 1987년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988년부터는 주일밤찬양예배의 시간이 주일밤에서 주일 오후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은 오후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계속해서 ‘밤예배’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도 말까지 계속되었다. 1990년 9월 2일 주보의 광고를 보면, 이 주일밤찬양예배를 ‘석양예배’라고 지칭하고 있다. 공식적인 명칭은 그대로 주일밤찬양예배였지만, 예배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석양예배라는 새로운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일밤찬양예배의 진행 순서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1988년 5월 8일 주보다. 그 순서를 보면, **‘예배의 말씀-찬송-기도(대표)-찬송-성경봉독-찬양(특송)-설교-기도(설교자)-찬송-성도소식-축도’**로 되어 있다. 이 순서는 1989년과 1990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이 시간에는 각 기관의 헌신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헌신예배에는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1985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각 기관이 연간 3회씩 헌신예배를 드린 것으로 파악된다. 1986년도의 헌신예배는 제직회 1회, 여전도회 5회, 아동부 4회, 남선교회 3회, 청년부 3회, 고등부 3회, 중등부 3회였다. 1987년도에는 교사헌신예배가 추가되었고, 교회학교 부서들은 각 3회, 청년회와 남선교회 1·2여전도회는 각 4회씩의 헌신예배가 배정되었다. 1988년에는 헌신예배의 횟수가 월 1회로 감소하였고, 제직헌신 1회, 전도부 2회, 봉사부 1회, 교육부 2회(아마도 교회학교), 남선교회 2회, 여전도회 2회, 청년회 2회로 조정되었다. 1989년과 1990년에는 제직회, 전도부, 성가대, 남선교회, 1·2청년회, 1·2·3여전도회,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가 각 1회씩 헌신예배를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주일밤찬양예배’는 구역단합대회, 성경퀴즈대회, 복음성가의 밤, 야외예배, 각종 절기행사 등을 진행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시기 주일밤에 행해

진 교회 행사들로는 구역단합대회, 새찬송 배우기 또는 찬송가 해설, 가족찬송경연 대회, 기관별 성경퀴즈대회, 기관별 찬양잔치, 교회학교 졸업예배 등이 있었다.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3년 12월 11일에는 금암교회당에서 열린 ‘인권주간 연합예배’에 참석하였고, 1984년 7월 19일에도 성암교회당에서 열린 전주 시 기독교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 1984년 8월 12일에는 서문교회당에서 열린 선교 100주년 전주시 선교대회에 참석하였고, 1984년 10월 14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호남대회에 참석하였다.

### 3) 수요성서학교

수요일 밤에는 ‘수요성서학교’로 모였다. 일반적으로는 ‘삼일밤기도회’ 혹은 ‘수요기도회’라고 부르던 모임인데, 수요성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서와 신앙의 내용을 탐구하고 배우는 일을 강조한 것이다. 수요성서학교는 성서 권별 강해 혹은 주제별 강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1983년 10월 23일 주보는 야고보서 공부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1984년 5월 27일 주보는 구약개론을 공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1985년 10월 10일부터는 에베소서 공부가 시작되었다. 1986년 교회 수첩은 이 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987년 교회 수첩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도행전을 계획하고 있다. 1988년에는 사도행전 강해, 1989년에는 로마서 강해와 「빨라 성서연구 교재」 사용, 1990년에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강해의 흔적들이 주보에 남아있다. 한편 수요성서학교의 진행순서는 1989년 4월 2일자 주보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 순서를 보면, ‘찬송-기도(대표)-성경-설교-찬송-주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수요성서학교의 시간은 저녁 8시와 7시 30분을 오갔다.

#### 4) 각종 기도회

새벽기도회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진행되었다. 내용이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성서 권별 강해와 개인기도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1984년 8월 19일 주보는 새벽기도회 버스 운행 광고를 싣고 있는데, 이동교→효자삼거리→동산병원→예수 간호대학→진안삼거리→인후2단지→교회로 그 코스가 잡혀있다. 때때로 특별기도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1982년 5월 23일부터는 개척 1주년 기념행사로 ‘기도 60일 대행진’이 진행되었다. 1984년에는 9월 23일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도 대행진을 벌였다. “예배당 건축, 총동원 주일 목표 달성, 전교인 성령 충만, 밤예배와 새벽기도회 열심 참여, 어려운 이웃 위해(농어촌, 광산촌민), 교회가 교회 되게, 영력 있는 교역자 위해” 등의 기도제목을 정하고 매일 새벽기도회에 기도하였으며, 매일 밤 8~9시에도 모여서 기도하였다. 청년부 2주, 남선교회 1주, 여전도회 2주를 각각 맡아서 기도로 헌신하였고, 전체 행사 주관은 청년부가 담당하였다. 1985년에는 9월 15일 총동원 주일을 정해두고, 8월 26일~9월 15일 기간에 20일 작성기도를 진행하였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청년회 주관으로 철야기도회를 진행하였다.

#### 5) 예배 관련 기구들의 활동

성가대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가장 오래된 주보인 1983년 10월 23일 주보의 예배순서에도 성가대의 찬양 순서가 들어있으므로 그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전언에 따르면 개척 초창기에 이미 성가대가 조직되어 채규환 집사가 지휘하고 있었다고 한다. 성가대 조직은 1984년 12월 30일 주보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날 주보 광고는 지휘 김광일, 반주 정희자, 총무 이양순으로 하는 1985년도 성가대 조직을 싣고 있다.



지하예배당 입당예배 때의 성가대 모습(1985년 6월 16일)

성가대는 1987년에 이르러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지휘자였던 김광일 집사와 반주자였던 정희자 집사가 사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6월 26일부로, 부지휘자를 맡고 있던 송성희 선생(현재 시무장로, 2부 찬양대 지휘)이 지휘를 맡고, 부반주자였던 양미경 선생이 반주자로 임명되었다. 1989년 주보가 당시 성가대 활동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3월 26일 부활주일 밤예배 때 성가대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때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여 공연하였다. 1990년 부활주일에도 동일한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12일(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가대 수련회를 갖기도 하였다. 성가대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83년 12월 19~20일의 제직수련회 자료는 교회 조직으로 ‘어린이성가대’, ‘학생성가대’, ‘어머니성가대’, ‘본성가대’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이러한 조직이 존재했다기보다는 목표로 제시된 것이다. 어린이성가대와 학생성가대의 경우, 아동부 헌신예배나 중·고등부 헌신예배의 특별찬양 순서에 등장한다. 초창기에는 헌신예배에 참석하여 찬양하는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렇게 지칭한 것으



성가대 모습(1989년)

로 보이며, 1989년부터는 황의욱 선생, 김현경 선생 등의 노력으로 어린이성가대가 실제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어머니성가대의 경우 이 다음 시대에 조직되어 오랫동안 주일밤예배·오후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게 된다.

성가대 이외의 예배 관련 조직으로는 성단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등이 있었다. 성단위원은 강단의 청결, 꽃장식, 성찬기, 헌금함, 가운 등을 관리하였다. 1986년에는 김정은 권사와 송양순 권사가 담당하였고, 1987년에는 이순의 권사가 추가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이양순 권사와 박영자 권사 그리고 이정자 권사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안내위원은 월별로 2명(1986년), 4명(1987년), 6명(1988년 이후)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헌금위원 역시 월별로 2명(1986년, 1987년), 5명(1988년, 1989년), 6명(1990년)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해마다 예배 참석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 성가대의 연도별 조직 현황

### • 1985년

지휘 : 김광일, 반주 : 정희자, 총무 : 이양순

소프라노 : 강혜숙 김경희 김광옥 김봉연 김영애 박미영 박현숙 이경희 이양순

알토 : 백영란 이성옥 최성자 최점순

테너 : 강성환 안효초 이감철

베이스 : 박승이 성민식 송우석 양인석 조석문 홍성민

### • 1986년

대장 : 안송엽, 지휘 : 김광일, 반주 : 정희자

### • 1987년

대장 : 장길환, 지휘 : 김광일, 부지휘 : 송성희, 반주 : 정희자, 부반주 : 양미경

### • 1988년

대장 : 임건웅, 지휘 : 송성희, 반주 : 양미경

### • 1989년

대장 : 임건웅, 지휘 : 송성희, 총무 : 이감철, 반주 : 양미경

### • 1990년

대장 : 안송엽, 지휘 : 송성희, 총무 : 이희성, 반주 : 양미경

## 2. 절기와 행사

### 1) 사순절~부활절

개척 초기 사순절~부활절 절기의 흔적은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고난주간에는 한 끼씩 금식하고 그것으로 이웃돕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 자료

상으로는 1985년 3월 31일 종려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지켰고, 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고난일 예배’를 드렸다. 부활주일인 4월 7일에도 별다른 행사를 치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989년 부활주일(3월 26일)에는 넷째 주일임에도 예배에 성찬식 순서가 들어갔다. 또한 주일밤찬양예배는 성가대 헌신예배로 드렸는데, ‘고난-부활-승천’으로 이어지는 주제의 부활절 칸타타를 공연하였다. 합창, 독창, 이중창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된 칸타타였다. 이날의 부활절 행사는 1988년 10월 23일 본당에 입당하여 치른 첫 번째 부활절 행사이기도 했다. 1990년 부활절 역시 동일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활주일의 절기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창립기념주일

1982년에는 개척 1주년 행사로 ‘기도 60일 대행진’을 진행했다. 1984년에는 7월 8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지켰다. 예배순서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추가되었고, 개척의 주역이었던 정라헬 집사가 기도하였으며, 예배 후 잔치도 벌였다. 또한 3주년 행사로 청년신앙수련회(7월 3일 밤 8시), 제직수련회(7월 5일 밤 8시), 교



교회창립 3주년(1984년 7월 3일)



교회 창립 9주년(1990년 7월 1일)

사수련회(7월 8일 오후 4시)가 있었다. 또한 각 기관이 복음성가를 1곡씩 준비하여 ‘복음성가의 밤’ 행사를 밤예배시간에 가졌다. 1985년의 4주년에는 주일예배 후 교제의 시간(식사 교제)이 있었고, 기관별로 축하순서를 준비하여 밤예배시간에 축하 행사를 가졌다. 1985년의 창립기념주일은 예배당을 건축하여 ‘셋집’을 면하고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갖는 첫 번째 창립기념주일이었으므로 그 감격이 특별하였을 것이다. 1989년에는 창립기념주일 전 주일인 6월 25일 주보에 “3주년 때 드렸던 우리의 기도”를 수록하면서 역사를 되새겼다.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이었던 7월 2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켰으며, 오후 4시의 주일밤찬양예배 후에는 축하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은 증축된 예배당에서 맞은 첫 번째 교회 생일이었다.

### 3)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1983년부터 확인된다. 11월 20일이었고, 예배 후 친교 시간(식사 교제)을 갖고, 밤예배 시간에는 ‘가족찬송경연대회’가 있었다. 1985년 추수감사절은 11월 24일이었다. 이 시기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미국 선교사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추수감사절(1983년)

1989년에는 10월 29일, 1990년에는 10월 28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미국 선교사들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맥추감사절도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었다. 1984년의 맥추감사절은 7월 29일, 1985년에는 7월 28일, 1989년에는 6월 26일이었다.

#### 4) 성탄절~송구영신

1981~1982년 성탄절 행사는 교회학교 중심의 축하 행사와 새벽송이 있었다고 한다. 기록상의 성탄절 행사는 1983년부터 확인된다. 12월 4일부터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위한 성가대 자원자를 모집하여 25일 밤예배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을 중심으로 한 ‘성탄촛불찬양예배’를 드렸다. 25일 새벽에는 새벽송 행사도 있었다. 1984년 성탄축하 행사는 12월 23일 주일밤찬양예배시간에 교회학교(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와 청년회가 성시 낭독, 인형극, 중창, 성극, 율동, 무언극, 독창, 합주, 성가 등을 준비하여 축하 잔치를 벌였다. 이때 설교는 양인석 선생이 담당하였다. 이후로는 대체로 12월 24일 밤의 교회학교 성탄축하 행사가 정착되었다. 송구영신예배와 관련



성탄절(1981년)



성탄절(1990년)

해서는 1984년에서 1985년으로 넘어가는 1월 1일 0시에 ‘신년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다. 이후로 12월 31일 밤의 송구영신예배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까지도 종교개혁주일 등 몇몇 절기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5) 기타

여러 가지 친목 행사들도 있었다. 찬양대회로는 1983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행사로 열린 ‘가족찬송경연대회’, 1984년 7월 8일 창립기념행사로 열린 ‘기관별 복음성가 경연대회’(사회 : 이감철 선생), 같은 해 7월 22일 밤에 열린 ‘가족찬송경연대회’ 등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1985년 4월 28일에는 밤예배 후 기관별 성경퀴즈를 진행하였다. 1985년 5월 26일은 전교인 야외예배로 드렸다. 1985년은 예배당 건축으로

인하여 1984년에 비해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는 구역단합대회, 성경퀴즈대회, 가족찬양대회, 복음성가의 밤 등의 친교 행사가 연례적으로 정착되어갔다. 1986년 10월 19일에는 추계체육대회를 한일신학교 교정(당시 다가동 소재)에서 예산 100,000원으로 개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89년 6월 24일에는 2여전도회에서 경로잔치를 주최하였다. 행정적으로는 1986년 5월 4일의 1차 임직예식, 1988년 10월 23일의 본당 입당, 1988년 11월 8일의 안찬엽 목사 위임예식 및 2차 임직예식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10월 11~12일 전북노회 115회 정기노회가 본교회당에서 열렸던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배당 2차 건축을 통해 확보된 공간으로 노회에도 기여하면서, 전북노회의 주축 교회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선교

#### 1) 개척 초기의 교회성장 운동

개척 초기 선교의 초점은 교회성장에 오롯이 집중되었다. 교회성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총동원 주일과 특별기도 기간이나 부흥회 등의 행사를 결합한 것이, 개척교회로서 교회성장 선교를 추진한 방식이었다. 전도와 교회성장에 대한 강조를 위해 특히, 주보가 잘 활용되었다. 1983년 12월 4일 주보에 “성장의 기초가 되어 있는 동산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11월 13일에 있었던 설문 조사 결과가 수록되었다. 신앙생활 관련해 여러 문제들에 관한 실태조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성장의 기초가 되어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12월 18일 주보에는 “교회성장에 관한 성서적 근거”라는 글이 실렸다. 교회성장을 개인의 신앙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신앙공동체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온 교우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었다.

1984년에는 7월 8일 ‘창립 3주년을 맞는 우리의 기도’에서 ‘장년 성도 30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7월 29일 주보는 “교회성장의 10가지 원리”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성령 충만한 교회, 유능한 교역자를 가진 교회, 평신도를 움직이는 교회,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행정적인 체계를 갖춘 교회, 효과적인 전략 개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선교하는 교회, 사회적 관심을 가진 교회’ 등이었다. 1985년 8월 11일 주보는 “총동원 주일을 설정하며”라는 글을 통해, 9월 15일로 예정된 총동원 주일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이어서 8월 18일부터는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진행하는 “20일 작정기도”의 기도제목을 반복해서 수록하고 있는데, ‘9월 15일 150명, 성탄일 200명 출석’과 ‘한 사람당 1~2명 이상씩 그리스도께 인도’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였다. 총동원 주일 직전 주일인 9월 8일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글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1월 3일부터는 부흥회를 앞두고 3주간에 걸쳐 “교회성장과 부흥회”라는 글을 연재하여 ‘1907년 대부흥운동’을 소개하면서 부흥회를 교회성장의 관점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4년부터 교회성장을 위한 노력은 좀 더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교회성장 운동의 책임을 맡도록 제직회에 전도부가 조직되었다. 1984년 전도부 조직은 부장에 김기범, 최복자, 부원에 김남순, 이양순, 최성자로 구성되었다. 1983년 12월 제직수련회에 제시된 전도부의 임무는 ‘부흥사경회, 교인배가 운동, 마스크 전도, 국내외 전도’였다. 교회성장 운동은 총동원 주일을 통해 강하게 추진되었다. 1984년 4월 8일의 총동원 주일에 123명이 참석하였고, 9월 23일에 다시 160명 출석 목표를 두고 총동원 주일을 가졌는데, 이를 앞두고 5주간의 ‘기도 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12월 16일에도 다시 한번 총동원 주일 행사를 가졌는데, 이때는 12월 10~14일의 부흥사경회(강사 유종철 목사)와 결합하여 추진되었다. 1985년에도 세 차례의 총동원 주일이 있었다. 3월 31일에는 조요셉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하였고, 9월 15일은 ‘20일 작정 기도’와 결합하여 150명 출석을 목표로 진행하여 147명 출석을 달성

하였다. 12월 22일에는 다시 한번 11월 18~22일 부흥사경회(강사: 시온산기도원장 박성범)와 결합하여 200명 출석을 목표로 한 총동원 주일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강사 사정으로 인해 부흥회는 불발되고 말았다. 한편, 1982년에도 9월 6~11일(강사: 이성근 목사), 11월 1~5일(강사: 이찬양 목사) 두 차례의 부흥회가 열렸다. 이 역시 개척교회의 교회성장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총동원 주일과 같은 전도 프로그램은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1988년 주보는 “구역을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로”라는 슬로건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88년 5월 8일 향존직 직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의 설교 제목 “조직을 통한 교회성장”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도 교회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89년 교회생활 수첩은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600명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던 1989년 7월 9일의 총동원 주일은 유치부 32명, 아동부 114명, 중등부 37명, 고등부 30명, 장년부 548명 등 총 761명의 출석을 기록하였다. 1990년 9월 16~20일에는 김항안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도폭발 대성회를 열고 매일 지역 전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 달성되어가면서 교회성장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86년도 목회계획에는 연 3차의 총동원 주일이 계획되었던 것에서, 1987년에는 연 2회, 1988년과 1989년에는 연 1회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전도훈련과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전도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전도의 생활화와 가정 복음화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 2) 선교 실천과 이해의 점진적 확장

교회성장에 대한 강조의 완화가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선교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회성장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든든한 예배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선교 실천의 다양한 행로를 모색하고 열기 시작하였다. 1986월 2월 20일부터 장수군

천천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회에 신정의 전도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신정의 전도사는 교회의 첫 개척자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어려운 시절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던 분이였다. 이로부터 전주강림교회의 농촌 선교, 지역교회 협력 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이어서 1986년 12월 20일부터 순창군 유등면에 있는 반석교회(권인수 전도사), 1988년 1월 1일부터 남원군 운봉면 매요리에 있는 매요교회(전수길 목사, 1989년 4월 9일 윤창화 목사 부임), 1989년 1월 1일부터 진안군 물곡리 물곡교회, 1990년 1월 1일부터 진안 성운교회, 1990년 7월 1일부터 완주군 피목교회 등으로 그 협력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협력의 내용은 농촌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과 신앙적인 교류 등이었다. 1989년 10월 1일에는 신기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해외 선교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9월 15일 태국의 핏담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는 뉴질랜드 신종혁 선교사에 대한 선교 후원이 시작되었다. 1989년부터는 헌금 항목에 ‘선교헌금’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1989년 4월 9일 주보는 태국 핏담교회에 찬 목사가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 4월 16일 주보는 ‘밤예배 후 해외 선교 회원들이 함께 모여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는 광고를 싣고 있다. 선교헌금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해외 선교 회원’으로 지칭한 것이었다. 선교지 교회와의 교류,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선교적 관심의 증대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열리고 있었다. 1989년 6월 24일에는 제2여전도회 주최로 경로잔치가 열렸다. 이는 다음 시대에 본격화될 노인대학 등 지역사회 선교의 첫 삽을 뜨는 일이었다.

이와같이 선교 실천 내용의 확장이 시작되면서 보다 온전하고 통전적인 선교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제직회 조직상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1989년도 제직회 조직에는 ‘전도부’가 ‘선교부’로 변경되었는데, 이듬해에는 선교부를 다시 전도부와 선교부로 분리하였다. 전도부를 선교부로 변경한 것은 선교실천의 폭을 더 넓히고자 하는 모습이고, 전도부와 선교부의 분리는 농촌 선교, 해외 선

교 등 더 넓은 복음실천의 길을 교회성장에 종속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직 배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회성장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농촌 선교, 해외 선교 등 더 넓은 복음실천의 길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직상에 반영한 것이다.

한편, 1990년 11월 18일 주보는 목회서신으로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소개하면서 ‘창립 10주년을 위한 사업’ 토의를 위한 제직 모임을 소집하고 있다. 당회에 먼저 제안된 것을 제직들과 함께 논의키로 하여 소집된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안창엽 목사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를 창립 10주년의 역점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이 주제는 제직들의 토의를 거쳐 다음 시대의 목회 방향으로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 교회의 행로를 결정하는 일이 되었다. 이로써 전주강림교회의 선교는 더욱 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 4. 목회

### 1) 목회 상황 개관

#### (1) 개척 초기의 혼란

개척 초기의 목회는 안창엽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행정을 지도하는 가운데 채홍학 목사, 차길송 전도사, 송마리아 전도사가 예배 인도와 목양 관리에 참여하였다. 1981년 10월 8일 예장(통합) 전북노회로부터 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후로는 예장(통합) 소속의 목회자 청빙을 모색하게 되는데, 당시 임시당회장인 안창엽 목사의 추천으로 김종채 목사가 1982년 2월 14일 부임하였다. 개척 시작 후 7개월여 만에 담임목사가 부임하여 정식으로 목회가 시작된 것이다.

담임목사의 부임은 아무래도 목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각종 예배

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을 것이고, 행정적인 체계 역시 정돈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1982년 3월 21일부터는 정라헬 집사가 버스를 헌물하여 차량 운행도 시작되었다. 5월 16일부터는 교회 주보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5월 23일부터는 개척 1주년 ‘기도 60일 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회가 조직되었다(1982년 6월 13일). 1982년 9월 6~11일 이성근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경회를 개최하고 11월 1~5일은 이찬양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부흥회를 여는 등 다양한 목회적 노력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시 교인 수는 장년 80여 명, 청년부 20여 명, 중·고등부 40여 명, 아동부 40여 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부임 후 채 1년 반이 되지 못하는 1983년 6월 9일 김종채 목사가 돌연 사임하게 된다. 전북노회는 1983년 6월 15일 이윤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교회의 행정을 돌보도록 했지만, 개척 초기의 어린 교회에 담임목사의 공백은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개척 멤버였던 송마리아 전도사, 차길송 전도사, 강석분 전도사는 각각 사역지를 찾아 떠났고, 오정희 씨 역시 교회를 떠나 정라헬 집사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중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인이 흩어지고 15명가량만 남게 되었다. 급기야 동산중앙교회는 건물 월세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등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문을 닫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남은 성도들은 밤마다 릴레이로 철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학생회와 청년회가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가며 교회를 지켰다고 한다.

## (2) 안창업 목사의 부임과 목회의 안정화

이런 상황에서 안창업 목사가 동산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83년 9월 18일이었다. 안창업 목사는 교회의 개척 직후부터 주일 오후 성경공부를 지도하였고, 임시당회장으로서 갓 태어난 교회의 행정을 지도하고, 김종채 목사를 담임목사로 소개한 바 있었다. 그렇게 애정을 쏟은 교회가 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에, “교회를 개척도 하는 마당에 문을 닫는다는 말이 웬 말이냐?”며, 안정적인 목회

지었던 효자동교회를 뒤로 한 채 동산중앙교회로 부임하였다. 안창엽 목사의 그러한 희생적 헌신에 힘입어 동산중앙교회는 개척 초기의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어엿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안창엽 목사는 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는 교회”(1984년과 1985년의 교회 표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회 세우기에 매진하였다. 1985년 8월 4일 주보에 실린 “우리 교회의 표어”라는 글에 따르면, 이 표어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교회 개념을 강조하는 취지를 가진 것이었다. 그에 따라 예배를 바로 세우고, 제직회를 비롯한 각급 조직들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교회 일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회와 수요성서학교, 주보를 통한 교육 등을 활용하면서 총력을 기울였다. 기도회와 부흥회, 총동원 주일 등을 결합하여 전도의 활력을 끌어올렸으며, 구역을 조직하고 정기적인 심방 활동을 펼치는 등 목양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회 성장의 길을 열어나갔다. 그 결과 교회는 신속하게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 위치에 교회부지를 마련하고 예배당 건축을 추진하여 1985년 6월 16일 지하 예배당(현재의 고등부실) 입당예배를 드리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5년 10월 27일과 11월 3일에는 공동의회에서 향존직 직원(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들을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장로교파의 한 지교회로 그리고 어엿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 (3)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안창엽 목사는 부임 직후부터 해마다 교회의 실천 표어를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지향을 밝히고 그에 따라 교육하고 조직을 다지고 교회의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목회를 실천하였다. 1984~1985년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는 교회”를 표어로 하였는데, 양적인 성장을 통하여 든든한 신앙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 지점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자체 건물의 확보, 향존직 선출과 임직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다. 1986~1990년 시기의 목회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시기였다. 해마

다 실천표어를 제시하고, 연간 목회 계획을 월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리 준비하고 협의하며 목회와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기간 교회의 연도별 실천 표어를 살펴보면, 1986~1987년에는 “주님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증인 된 교회”였다. ‘듣기’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고, ‘함께 살기’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공동체적 나눔을 가리켰다. 그리고 ‘증인 되기’는 전도와 교회성장을 지향하면서 신앙생활의 방향과 틀을 제시한 것이었다. 1988년에는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1989~1990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합시다”라는 표어를 사용하였다. 1988년의 표어는 2차 예배당 건축과 2차 직원 선출 및 임직 등을 고려하였고, 1989~1990년의 표어는 2차 건축 이후 추가적인 교회성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효과적인 조직과 활동과 교육을 통해 세밀하게 다듬어졌다. 2차례(1986년, 1988년)에 걸쳐 세워진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여러 일꾼이 각기 역할을 나눠 맡으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특히 하나의 든든한 예배공동체로 세워져 갔다. 이 시기의 교회 수첩들을 보면, 예배를 위한 직책들이 세분화되고 각각의 임무 매뉴얼이 제시되고 있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교회 성장 운동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교인들을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 (4) 교역자 상황

이 시기 교역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81년 8월 21일 안창엽 목사가 ‘초청 임시당회장’으로 부임하여 교회를 지도하였다. 1981년 8월 23일 송마리아 전도사와 차길송 전도사가 취임하여 목회에 참여하였다. 차길송 전도사는 1982년 6월 27일 사임하였고, 송마리아 전도사도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82년 2월 14일 김종채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83년 6월 9일 사임하기까지 목회하였다. 1983년 9월 18일 안창엽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목회는 안정될 수 있

었다. 1984년 1월 1일 부임한 신선일 전도사는 그해 12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시무하였다. 1985년 8월 18일에 부임한 동선옥 전도사는 목양 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적 책임을 다하다가 1990년 7월 1일 사임하였다. 그 사이에 1986년 12월 7일 양인석 전도사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교회학교 전반과 청년부 목회를 담당하였다. 1989년 12월 31일에는 최만규 전도사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하다가, 1990년 9월 1일부터는 동선옥 전도사의 후임으로 전임전도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담임목사인 안창엽 목사는 1987년도에 전북노회 노회장을 역임하면서 노회를 섬겼다. 1988년 10월 9일 공동의회에서 위임청빙을 받고, 같은 해 11월 12일 위임예식을 치렀다. 또한 1990년부터 맥코믹대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였다.

## 2) 목양 관리

### (1) 심방

목양 관리 활동은 심방과 구역 활동을 축으로 이루어진다. 심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주보에서 일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안창엽 목사 부임 직후인 1983년 10월 2일 주보는 일제 심방을 마쳤다는 광고를 싣고 있다. 1984년 6월 24일 주보는 6월 27일~7월 6일의 기간 동안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일제 심방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1984년 9월 9일 주보는 13일부터 실시되는 가을 대심방을 알리고 있다. 1985년에도 9월 23일~10월 9일 동안 가을 전체 심방이 이루어졌다. 전체 가정에 대한 심방 이외에도 지속적인 심방 활동이 있었다. 1981년 8월 23일 취임하여 1982년 6월 27일에 사임한 차길송 전도사, 1984년 1월 1일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 30일 사임한 신선일 전도사, 1985년 8월 18일 부임한 동선옥 전도사 등이 이 같은 심방 활동을 통한 목양 관리를 담당하였다.

## (2) 양육 활동

목양 활동 중 중요한 한 부분이 교육 혹은 양육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신앙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인지하고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창엽 목사의 부임 직후부터 양육 활동은 매우 강화되었다. 몇 가지 방안들이 활용되었는데, 첫째는 제직수련회와 같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구역예배다. 셋째는 수요성서학교와 새벽기도회다. 안창엽 목사는 전통적으로 ‘삼일기도회’라고 불리던 수요일 밤의 예배 모임을 ‘수요성서학교’로 변경하고 이를 중요한 교육의 통로로 활용하였다. 새벽기도회 역시 성서 강해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중요한 신앙 양육의 통로가 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는 각각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외의 세 가지에 주목해 본다.

첫째, 주보가 신앙교육의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 주보는 한 면을 교육 면으로 할애하여 꾸준히 교육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1984년과 1985년에는 주보 표지를 교육 면으로 활용하였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신앙적 주제들이다. 83년 10월 2일 자 주보에는 ‘(2)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라는 교육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번호가 (2)인 것으로 보아 이 앞 주인 9월 25일부터 예배 교육 자료가 주보에 수록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예배에 대한 교육 이후에는 성령의 은사, 십계명 시리즈, 요리문답 시리즈, 그밖에 경건생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주보에 수록된 두 번째 부류의 교육 내용은 절기에 대한 해설이다. 가정의 달, 오순절, 맥추감사절, 광복절,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등 주요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어오던 시리즈를 중단하고 절기에 관한 교육 내용을 수록하였다.

주보를 활용한 세 번째의 교육 내용은 목회적 메시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진행되던 특별기도회 기간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록하고, 예배당 건축 기공과 입당을 앞두고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시작되는 때에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 같은 글을 실어 교회 교육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

성례전을 앞두고는 ‘세례와 성찬’, 향존직 직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는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부흥회를 앞두고는 ‘교회성장과 부흥회’ 등의 내용이 주보를 통해 전달되었다. 목회적 강조점을 드러내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주보의 교육 면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둘째, 강림성서대학을 개설하였다. 1986년부터 교회 조직도 상에 평신도 성경 연구원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는 교육부장(안송엽 장로)과 교육전도사(양인석 전도사)가 행정적 책임을 맡고, 안창엽 목사와 양인석 전도사가 신구약 개론, 성서신학, 교회사, 교리연구, 청지기 직분 등의 과목을 교육하였다. 1987년에는 목회 계획 상에 강림성서대학을 개설하여 「살아있는 진리」 교재와 공관복음을 공부할 계획이 잡혀있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1989년 4월 21일 강림성서대학의 개강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 첫 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구약개론, 사도행전, 이단연구였고, 한 학기 등록금은 2만 원이었으며 안창엽 목사와 양인석 전도사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주간반은 금요일 오후 1:30~4:30, 야간반은 금요일 밤 7:30~9:30이었다. 1989년 9월 5일에 개강한 2학기에는 신약개론, 신명기, 조직신학이 개설되었으며, 주간반은 화요일 오후 1시 40분, 야간반은 금요일 오후 7시였다. 1990년 10월 4일 주보는 주간반이 화요일 오후 2~4시, 야간반이 금요일 오후 7:30~9:30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강림성서대학은 1991년 3월 10일에 20명의 1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셋째, 교회 수첩이 중요한 교육의 채널이 되었다. 교회 수첩을 통하여 목회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 각 조직과 직책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여러 봉사자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교회 수첩은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이라는 제목 아래 예배생활, 경건생활, 결혼 및 상례에 관한 조언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88년 수첩에는 “새신자들을 위하여”를 추가하여 새가족들을 위한 교육 기능도 담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에 ‘사회생활’ 항목을 추가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로 나누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에 관한 모범을 제시하였다. 교회 수첩에 이러한 교육 기능을 넣음

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표준을 형성하고, 매년의 반복을 통해 그 내용이 숙지되고 정착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 교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 (3) 구역·교구

구역 활동은 1984년도부터 확인된다. 1984년 8월 26일에는 구역을 새로이 조직하고 그 내용을 별지로 배부한다는 광고가 실렸는데, 9월 9일 후보에 6개 구역으로 된 재편성 내용이 수록되었다. 1984년 6월 24일 후보의 일제 심방 계획에서 1~5구역까지를 제시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연초에는 5개 구역을 편성하였다가 이때 1개 구역을 증설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의 구역은 2개가 늘어난 8개로 시작했는데, 9월 8일의 재조정을 통해 다시 2개의 구역을 증설하여 10개 구역이 되었다. 구역 조직은 1986년에는 11개 구역, 1987년 13개 구역, 1988년 14개 구역, 1989년 18개 구역, 1990년 20개 구역으로 매해 증설되면서 교회의 급속한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다.

당시 한국교회 일반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전주장립교회 역시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예배로 모였다. 1984년 5월 27일 후보는 구역장 권찰 모임을 6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11시에 진행한다는 광고를 신고 있다. 이 시간에 구역 운영에 대한 협의와 구역예배 인도를 위한 공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구역예배를 위해 1986년에는 매주 수요일성서학교 후 구역장 모임을 가졌고, 매주 금요일 심방장과 권찰모임이 있었다. 1987년과 1988년에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구역장과 권찰모임을 갖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1989년에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인도자 모임이 있고, 구역장 권찰모임은 수요일성서학교 후에 모였다. 1990년도에는 구역 인도자 공부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었음을 당시 후보를 통해 알 수 있다.

구역 활동은 주일밤예배시간의 구역단합대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84년 5월 20일 후보는 5월 27일 주일밤예배 후 구역단합대회가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독창, 중창, 합창, 신약성경 책 이름 외우기 등으로 구역 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같은 해 10월 21일 밤에도 구역단합대회가 열렸다. 내용은 구약성경 이름

외우기, 찬송 1장 전부 외워 부르기, 합창 “주님 뜻대로”였다. 1985년 3월 31일의 구역단합대회는 구역성경책 이름 외우기, 찬송 1장 외워 부르기로 진행되었다. 1988년 5월 8일의 주보를 보면 그해에는 ‘주일밤찬양예배’ 특송이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1986년과 1987년 교회 수첩은 구역 운영에 관한 일종의 표준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역은 5~7가정으로 조직하되 약간의 유연성을 두었으며, 12가정 이상으로 성장하면 두 개의 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구역예배는 ‘찬송-기도-성경연구-권찰보고-기도-찬송-주기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역원 간의 교제,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각종 활동 참여를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3개 구역을 하나의 교구로 묶고 교구장을 두었다. 교구장은 주로 장로들이 맡았다. 구역 임원으로는 구역장, 권찰, 심방장이 있었다. 구역장의 주된 역할은 구역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고, 구역원들을 심방하고 보살피는 일은 주로 권찰이 담당하였다. 심방장은 구역장의 부인이 담당하여 권찰과 함께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구-구역’ 체제의 편성은 1986년, 1989년, 1990년이였다.

### ■ 구역 조직의 연도별 편성 현황

#### • 1984년(인도자/구역장/권찰)

- |                          |                      |
|--------------------------|----------------------|
| 1구역: 송영봉 이채옥 최복자         | 2구역: 이계생 박복남 유재순     |
| 3구역: 신선일 김남순 황소진/최성자     | 4구역: 손선우 윤상옥 백영란/박정순 |
| 5구역: 김기범 김옥희/김의자         |                      |
| 6구역: 안송엽/신정의 신은순 강분순/오순식 |                      |

#### • 1985년(인도자/구역장/권찰)

- |                  |                      |
|------------------|----------------------|
| 1구역: 송영봉 김경숙 정복순 | 2구역: 문조진 이채옥 최복자     |
| 3구역: 김응수 유재순 김양님 | 4구역: 김기범 김남순 최성자     |
| 5구역: 신선일 김옥희 김의자 | 6구역: 이기철 윤상옥 공순이     |
| 7구역: 안송엽 신은순 전선옥 | 8구역: 신정의 김봉연 강분순/오순희 |

- 1985년도 9월 8일 구역 재조정 된 내용(인도자/구역장/권찰)
  - 7구역: 동선옥 신은순 전선옥                      9구역: 안송엽 소현순 김옥자
  - 10구역: 권이철 이양순 박정순
- 1986년(구역장/권찰)
  - 1교구 송영봉 집사·이양순 집사(교구장 가정)
    - 1구역: 김경숙 임혜경(인도자) 정복순    2구역: 문조진 신은순
    - 3구역: 박주완 유재순
  - 2교구 김기범 집사·김영애 집사(교구장 가정)
    - 4구역: 최성자 김혜숙                      5구역: 김상순 양지순
    - 6구역: 이기철 백영란
  - 3교구 안송엽 집사·김옥자 집사(교구장 가정)
    - 7구역: 동선옥 김희숙                      8구역: 김봉현 김경옥
    - 11구역: 김종희 권순임
  - 4교구 권이철 장로·김정은 권사(교구장 가정)
    - 9구역: 윤석태 김세순                      10구역: 조성환 박정순
- 1987년(구역장/권찰)
  - 1구역: 김광옥 정복순                      2구역: 류시영 신은순
  - 3구역: 박주완 유재순                      4구역: 김기범 김남순
  - 5구역: 김상순 양지순                      6구역: 윤석태 오명자
  - 7구역: 양기영 전선옥                      8구역: 장길환 이영옥
  - 9구역: 이정석 김세순                      10구역: 박홍종 나영자
  - 11구역: 조성환 박정순                      12구역: 안송엽 이정자
  - 13구역: 송영봉 권순님
- 1988년(구역장/권찰/인도자)
  - 1구역: 설순자 정복순 고정희·윤철                      2구역: 신은순 이순이 류시영
  - 3구역: 유재순 최복자 박주완                      4구역: 송양순 유순희 김기범

- 5구역 : 김정자 이금숙 김상순
- 6구역 : 박정순 강정희 동선옥
- 7구역 : 백 봉 신운자 양기영
- 8구역 : 양희남 이영옥 진교현
- 9구역 : 양복순 박인희 이정석
- 10구역 : 염번자 이연숙 박홍종
- 11구역 : 박영자 정향자 권이철
- 12구역 : 김옥희 이정순 허용옥
- 13구역 : 양순님 권순님 김을환
- 14구역 : 김순희 배인순 조성환

• 1989년(구역장/권찰/인도자)

1교구 교구장 이양순 권사, 고문 송영봉 장로

- 1구역 : 설순자 고정희 김현순
- 2구역 : 오순희 우옥희 신은순
- 3구역 : 유재순 최복자 동선옥

2교구 교구장 송양순 권사, 고문 안송엽 장로

- 4구역 : 이금숙 양지현 김혜숙
- 5구역 : 양지순 이순이 조옥미
- 6구역 : 이정순 모윤숙 이정순

3교구 교구장 이순의 권사, 고문 류시영 장로

- 7구역 : 신운자 이인한 박정순
- 8구역 : 이윤례 전선옥 백 봉
- 9구역 : 이해정 서수녀 민현숙

4교구 교구장 이정자 권사, 고문 김기범 장로

- 10구역 : 이영자 양복순 박인희
- 11구역 : 김옥희 이정순 김옥자
- 12구역 : 김춘심 이금희 이계생

5교구 교구장 박영자 권사, 고문 은호섭 장로

- 13구역 : 김영애 이영옥 김영애
- 14구역 : 안월매 양순님 김미영
- 15구역 : 정양덕 정향자 나영자

6교구 교구장 김정은 권사, 고문 권이철 장로

- 16구역 : 염번자 이연숙 염번자
- 17구역 : 김정자 김세순 김승희
- 18구역 : 김순희 배인순 백영란

• 1990년(구역장/권찰/인도자)

1교구 송영봉 장로

- |                   |                   |
|-------------------|-------------------|
| 1구역: 유계순 이정옥 김현순  | 2구역: 오순희 우옥희 신은순  |
| 3구역: 유재순 김순주 박금녀  |                   |
| 2교구 유시영 장로        |                   |
| 4구역: 양지현 김미혜 김혜숙  | 5구역: 양지순 김미애 조옥미  |
| 6구역: 은영순 모운숙 이정순  |                   |
| 3교구 안송엽 장로        |                   |
| 7구역: 신운자 김희숙 박정순  | 8구역: 이윤례 전선옥 백 봉  |
| 9구역: 이혜정 이선옥 민현숙  |                   |
| 4교구 김기범 장로        |                   |
| 10구역: 이정자 양복순 이영자 | 11구역: 김옥희 이상순 김옥자 |
| 12구역: 김춘심 송계숙 이금희 |                   |
| 5교구 온호섭 장로        |                   |
| 13구역: 조귀자 이영옥 김영애 | 14구역: 양순님 박정숙 이양순 |
| 15구역: 신향용 이복례 박영자 |                   |
| 6교구 황경주 장로        |                   |
| 16구역: 이연숙 박찬숙 염번자 | 17구역: 김정자 김세순 김승희 |
| 18구역: 김순희 김선주 백영란 |                   |
| 7교구 권이철 장로        |                   |
| 19구역: 이순이 신정자 권순님 | 20구역: 이명숙 장정자 이명숙 |

### 3) 교회 밖을 향한 태도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돌보고 이끌어나가는 목양 활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교회 밖을 향한 태도”이다. 교회와 목회자가 교회 바깥을 향해 내보이는 태도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삶의 길을 제시하게 되며, 자신이 속한 신앙공

동체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민족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관심, 교회 연합에 대한 태도, 목회자의 대외 활동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민족과 사회에 대한 신앙적 관심은 안창엽 목사의 부임 초기부터 온건하면서도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동산중앙교회는 1983년 10월 30일 주간을 ‘세계 평화 기도 주간’으로 지켰다. 같은 해 12월 11일 주일밤예배는 금암교회에서 열린 ‘인권주간 연합예배’에 참여하였다. 1984년 6월 24일 주보에 실린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남북의 통일, 정의와 진리의 실현, 민족의 자유와 인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정자들, 북한에 있는 형제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다. 1985년 8월 18일 주보에 실린 기도 제목 역시 평화, 민주, 통일, 정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84년 9월 2일에는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그 주 수요일에는 성광교회당에서 열린 ‘대통령 방일 반대 및 재일교회를 위한 전주시 연합예배’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오후 3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호남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주일밤예배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대회의 주제는 “한국 민족사와 기독교 운동”이었으며, 강원용 목사(서울 경동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1985년 첫 주일인 1월 6일 주보에는 ‘세계 청소년의 해’, 광복 40주년, 12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 선교 100주년 등 민족과 사회 그리고 교회사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상황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과 사회에 관한 대응은 기독교교회협의회나 전주시기독교연합회 등 연합 기구들의 활동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흐름이 이 시기 내내 계속되었다.

교회 연합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84년 8월 12~14일에 서문교회당에서 있었던 ‘선교 100주년 전주시 선교대회’에 교회 버스를 운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8월 15~18일 서울 선교대회도 광고를 통해 알리며 참여를 격려했다. 같은 해 9월 16일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를 기회로 장로교회의 약사(略史)를 소개하였다. 안창엽 목사가 노회장(1987년)과 총회 총대로 활동하고, 정기

노회(1990년 115회 정기노회)를 본교회당에서 개최하는 등 상회 활동의 긴밀한 참여가 계속되는 한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등의 지역 연합 활동에도 빠지지 않았다.

노회 및 노회 내 다른 교회들에 관한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후보에 신고 알림으로써, 모두가 동행 관계에 있는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하는 연합의 정신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예컨대 1989년 10월 29일 후보는 새로 선출된 노회 임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 10월 22일 후보는 1989년 10월 24일 완산교회당에서 열리는 전북노회 113회 정기노회에서 남원노회와 전북동노회가 분립되어 전북지역이 세 개의 노회로 나뉘게 될 것임을 알리기도 했다. 그 밖에 다른 교회들의 임직식 소식들도 후보에 소개되었다. 여전도회와 청년회의 활동에서 보았듯이, 개척 초창기부터 자치기관들이 노회연합회나 전국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역시 중요한 교회 연합 활동이었다. 특히 청년회는 장청(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예장통합교단 소속 청년들의 연합 기구) 활동을 통해 에큐메니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대의 아픔과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고 고뇌하는 일을 신앙의 활동으로 깊이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회의 대외적인 관계와 활동이 초창기부터 이렇게 원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담임목사인 안창엽 목사가 이미 교계에서 지도적 위치에서 있는 중견 목회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회는 아직 개척 초기의 어린 교회였지만, 부임 당시의 안창엽 목사는 고창중앙교회, 익산 성산교회, 전주 효자동교회 등에서 만 16년간을 담임목사로 섬긴 중견 목회자였다. 전북 인권선교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교단총회에 총대로 참석하고 있었다. 이미 노회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있었으며, 총회의 총대로서 보다 넓은 전망에서 교회의 목회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 1983년 10월 23일 후보를 보면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20분~30분에 안창엽 목사의 라디오 방송설교가 전파를 타고 있었다. 안창엽 목사는 또한 1984년 5월~1987년 3월까지 한일장신대학교(당시 한일신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신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계의 인정받는 지도자로 활동하는 안창엽 목사의 모습은 교인들에게 썩 믿음이 가고 자랑스러운 목회자였다.